『종교와 문화』 제4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1-60

치유와 심학

19세기 조선 삼성의 강필을 중심으로*

김 지 현**

Ⅰ. 들어가는 말
Ⅱ. 겁운의 그림자, 전란과 질병
1. 중국의 겁운설
2. 조선의 겁운설
3. 삼성제군의 구겁과 개화
Ⅲ. 질병의 치유: 의약방과 퇴마
1. 질병과 의약방
2. 퇴마와 신성한 문자의 힘
Ⅳ. 심학, 개화의 기틀
Ⅴ.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질병과 치유는 종교 경험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몸의 질병과 정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종교적 실천의 중핵을 이루고 종교 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가족이 겪는 질병과 고통을 넘어, 국가 규모로 닥친 전염병과 재해, 전쟁과 같이 일상적 인지와 예측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2019S1A5A8035576).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의 죽음을 마주하는 상황은 인간의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다. 본 논문은 전란과 전염병 유행으로 한계 상황에 처했던 조선 말기, 왕실과 민간에서 행해졌던 치유의 실천과 삼성제군 신앙 확산에 주목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조선에는 콜레라와 천연두가 대대적으로 유행하였고 병의 기세가 잦아든 1880년, 고종의 명으로 『경신록(敬信錄)』,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과화존신(過化存神)』 등의 선서(善書)와 함께 삼성제군(關帝 · 文昌 · 孚佑)의 대표 경전을 엮은 『삼성훈경(三聖訓經)』이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들 선서의 반포가 '개화(開化)' 운동의 한 흐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1)]

이러한 선서의 인쇄와 유포는 유행 규모와 경로의 차이는 있으나 18-19세기 동아시아에서 공통되고 열광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행했고, 그 문화적 맥락과 의미에 대해서도 국가 관료층의 유교적 교화에 한정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란(扶鸞) · 강필(降筆) 등 계시로 성립한 선서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종교적 구제와 변용의 요청이라는 맥락이 조명되고 있다.[2)]

---

1) 고종기 선서 반포가 겁운설을 배경으로 한 구원론적 개화의 실천이라는 논의는 Jihyun Kim, "Enlightenment on the Spirit-Altar: Eschatology and Restoration of Morality at the King Kwan Shrine in Fin de siècle Seoul," *Religions* 11(6)273 (2020): 18-25를 참조. 문창제군의 강필서가 '개화창생(開化蒼生)'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김윤경, 「19세기 조선 최초의 교단 도교 무상단 연구 -『문창제군몽수비장경』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3 (2019): 127-149를 참조.

2) 酒井忠夫, 『增補中國善書の硏究』 (東京: 國書刊行會, 1999-2000); Monica Esposito, *Creative Daoism* (Wil & Paris: University Media, 2013); Vincent Goossaert, "Spirit Writing, Canonization, and the Rise of Divine Saviors: Wenchang, Lüzu, and Guandi, 1700-1858," *Late Imperial China* 36 (2015): 82-125; Lai Chi-Tim, "Spirit-Writing and Salvation: The Development of the Ming-Qing Daoist Spirit-Writing Cults of Lüzu and Related Literati Spirit-Writing Altars," *Daoism: Religion, History & Society* 12-13 (2020/2021): 1-68. 최근 조선의 부란강필에 대해 강필(降筆)과 강몽(降夢)을 구분하고 강몽에 의한 계시문헌은 난서(鸞書)로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다. 김형석, 「『文昌帝君夢授祕藏經』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 한국도교경전 성립과정에서 鸞書의 의미에 대해」, 『陽明學』 63 (2021): 189-218. 필자는 조선말 강필이 중국과 달리 목필과 사반을 사용하지 않았고, 꿈을 통한 계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관왕묘와 무상단에서 계(乩)가 목필 사반 없는 강필과 현몽(現夢)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목필 대신 난새를 새긴 붓을 사용하고 난새가 신성의 글을 전한다는 관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조선의 경우에도 '부란강필'과 '난서'는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im, "Enlightenment on the Spirit-Altar," 16-20.

이러한 구제와 변용의 요청의 저변에는 18-19세기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한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위기의식의 근본에는 서양 문명과의 충돌 및 양학(洋學)의 유입과 함께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전통 질서의 변화가 있었고, 문명 간의 물질 교역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유행을 수반했다. 서양 열강과의 전쟁,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의 총체적 불안 속에 전개된 치유의 실천 양상은 어떠했으며, 그 정신적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19세기 관왕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실천이 의약학과 퇴마술, 계시와 점술이 한 덩어리를 이룬 것이었으며, 사상적으로는 구겁(救劫)설과 삼교합일의 심학(心學)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도교의 겁운설이 어떻게 일반화되고 조선에 수용되었는지, 신성들의 계시를 통해 나온 약처방이 당시 의약학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조망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19세기 후반 조선 지성사의 변화를 '미신'에서 '과학'으로의 이행이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포착할 수 없으며, '개화'라는 주제 아래 심신을 아우른 총체적 변화의 모색이 시도되고 있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Ⅱ. 겁운의 그림자, 전란과 질병

1. 중국의 겁운설(劫運說)

청은 1840년대 초 아편전쟁과 난징조약을 거쳐 영국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고, 1850년대에는 광서성에서 시작하여 장강 일대와 북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을 뒤흔든 태평천국 운동과 열강의 진압으로 인한 진통을 겪었다. 이 시기에 대두된 것이 왕조의 운명이 다하고 파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중국식 종말론, 즉 겁운설이다.

'겁운'은 불교를 통해 수용된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칼파(kalpa) 관념이 4-5세기경 도경을 통해 중국의 시간관과 결합하여 형성된 순환적 시간관이다. 그 대략

적 내용은 천존(天尊)이 '겁의 시간을 열어 인간을 구제한다'는 도교 영보경(靈寶經)군의 '개겁도인(開劫度人)'을 골자로 한 것으로, 용한(龍漢), 연강(延康), 적명(赤明), 개황(開皇)의 연호를 가진 겁의 시간 주기를 지날 때마다 천지가 파괴와 재생을 거듭하는데[一劫之周, 天地又壞][3] 하나의 주기가 끝날 때 전쟁과 질병, 물과 불의 대재앙이 일어나 인류의 대다수가 사라지고 극소수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었다.[4]

이러한 겁운설은 도교의 교리 전개를 통해 확립되어 중국의 시간관에 스며들었다. 그런데 시간 단위를 의미하던 '칼파'의 음역어로 '빼앗다, 약탈하다'의 뜻이 있는 '겁(劫)'이 채택되면서 '겁운'은 단순히 시간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상의 생명이 '겁략(劫略) 당하는 파괴적 시간의 도래'라는 뉘앙스가 더해지기 쉬운 것이었다. 중국과 조선에서 이러한 도교의 겁운설이 어떻게 일반화되고 수용되어 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대(漢代) 이래 역학(曆學)가들은 천체 및 지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관찰을 통해 시간의 주기, 특히 가뭄과 홍수로 대표되는 재해(災害)의 주기를 파악하고자 했다.[5] 이러한 시간의 주기성에 대한 탐구는 자연현상의 관찰에 정성적 수리(數理) 관념이 복합된 설명체계를 내놓았다. 2세기경 중국의 이러한 자연관과 4세기 도경의 영향을 받아 정리된『태평경초(太平經鈔)』의 권두에는 전쟁[兵]

---

3)『洞玄靈書經』(『無上祕要』6「劫運品」), 1a. "天尊言, 龍漢之後, 天地破壞. 其中渺渺, 億劫无光, 上无復色, 下无復淵, 風澤洞虛, 幽幽冥冥, 无形无影, 无極无窮, 混沌无期, 號爲延康. 逮至赤明開光, 天地復位, 一劫之周, 天地又壞, 復无光明, 五劫之中, 幽幽冥冥, 三炁混沌, 乘運而生. 逮至開皇, 天地復位."

4)『隋書』「經籍志」道經, 1091-2; 神塚淑子,「開劫度人說の形成」,『六朝道教思想の研究』, (東京: 創文社, 1999), 361-414; 김지현,「도교와 술수」,『철학사상』57 (2014): 75-80.

5)『漢書』「律曆志」에 인용된『易九厄』에 의하면, 4617년을 1元으로 하는 시간 동안 음양의 재해가 9회에 걸쳐 일어나는데, 그 주기는 원년부터 106년 후 양재 9년, 다음 374년 후 음재 9년, 480년 후 양재 9년, 720년 후 음재 7년, 720년 후 양재 7년, 600년 후 음재 5년, 600년 후 양재 5년, 480년 후 음재 3년, 480년 후 양재가 3년간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해의 기간을 의미하는 백육양구(百六陽九)가 도경에서 전유되면서 백육은 음기의 과잉으로 인한 재해, 양구는 양기의 과잉으로 인한 재해를 뜻하며 겁운 말기의 징후로 여겨지게 되었다. 김지현,「도교와 술수」, 75-81.

과 전염병[疫], 수해[水]와 가뭄[火]으로 대표되는 재난 상황의 주기적 발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6) 겁운설은 이러한 중국의 주기적 재해 관념에 우주의 주기를 나타내는 인도의 칼파 관념이 복합된 것이었다. 도교의 경전들은 갑신(甲申)년을 파괴와 전환의 시기로 특정했고7) 왕조 교체는 이러한 대전환의 현상으로 여겨졌다.

중국에서 겁운설은 오랫동안 도교에서 창안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13세기 말 원나라 지원(至元) 연간에 있었던 도불 논쟁에서 불승 매상(邁祥)은 도교가 불교의 칼파를 차용하여 겁운의 연호를 '위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니 송원대에 이르기까지 겁운설은 도교의 시간관이라는 인식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8) 그런데 이러한 겁운설은 명대 이후 도교의 표지를 떼고 급속히 일반화되어 간다.

겁운 관념의 일반화는 당시 폭발적으로 유행한 신괴(神怪) 소설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청대를 풍미하며 중국의 다양한 신 관념을 바꾸어 놓기까지 했던『봉신연의(封神演義)』는 작품 곳곳에서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은주 교체의 전란기를 '겁운'이라 표현했다.9) "세상에 닥친 겁운은 만물을 초월한 신선들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하며 겁운을 신선조차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그 구속력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예로부터 겁운은 모두 하늘이 정한 것"이라 하여 천명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형상화했다.10) 명말 청초의 작품으로 알려진 청련실주인(靑蓮室主人)

---

6)『太平經鈔甲部』1, 1a-1b. "昔之天地與今天地, 有始有終, 同無異矣. 初善後惡, 中間興衰, 一成一敗. 陽九百六, 六九乃周, 周則大壞. 天地混壅, 人物糜潰. 唯積善者免之, 長爲種民", "上皇之後, 三五以來, 兵疫水火, 更互競興. 皆由億兆, 心邪形僞, 破壞五德, 爭任六情, 肆兇逞暴, 更相侵淩, 尊卑長少, 貴賤亂離."

7) 菊地章太,「甲申大水考—東晉末期の圖讖的道敎とその系譜」,『東方宗敎』87 (1996): 1-20; 김지현,「도교와 술수」, 80-81.

8) T52『辨僞錄』,「創立劫運年號僞」, 753c-754b.

9)『봉신연의』에서 겁운은 20여 회 등장하며 은주 교체기의 전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권3, 제 13회. "劫火運逢難措手", "劫運回環已萬源." 권9, 제 43회. "周爲眞命之主, 紂王乃無道之君. 吾等此來, 助紂滅周, 難道便是不應天時? … 不必倚强, 恐傷上帝好生之仁, 累此無辜黎庶, 勇悍兒郎, 智勇將士, 遭此劫運, 而糜爛其肌體也." 한국어 번역은 겁운을 '재난의 운수', '재앙의 운수'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10)『封神演義』권17, 제 82회. "元始曰, 塵世劫運, 便是物外神仙都不能免." 권18, 제

의 『후수호전(後水滸傳)』은 첫머리에서 "천도에는 순환이 있고 기수(氣數)에는 겁운이 있으며 국가에는 성패가 있고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11]고 하여 자연 질서와 인간 질서를 대변하는 천도와 선악보응과 함께 겁운을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로 묘사했다.

소설류뿐 아니라 명말 청초 사서류(史書類)에서 겁운에 대해 주목할 만한 언급이 나타난다. 명의 노장 원숭환(袁崇煥, 1584-1630)은 후금과의 전투에서 영원(寧遠)·금주(錦州) 대첩을 거둔 후, 1627년 후금의 태종 홍타이지에게 보낸 서간에서 "한 번 살기를 품으면 세상에 끝없는 겁운을 일으키고, 한 번 생기를 품으면 후손에 많은 경사를 보전할 것"이라고 충고하며 더 이상의 전란이 없기를 전했다.[12] 겁운은 소설 속 시간 장치에 그치지 않고 관료층의 정신세계 속에서 인간과 감응하는 우주의 운동성으로 사유되었던 것이다.

명말 사가들이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되고 대순(大順) 왕조가 들어섰던 '갑신년'(1644)에 대하여 "이는 천명이요 겁운이 이와 같아 틈왕(이자성)의 손을 빌려 탐관오리들을 경계했던 것이나, 여러 대신들은 금새 명조를 잊어버리고 (대순 왕조로부터) 거짓된 직책을 받았다"[13]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이와 더불어 겁운은 점차 '망국의 운'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14]

백련교(白蓮教), 팔괘교(八卦教), 천리교(天理教) 등 반청 운동의 결사들은 왕조 전복의 논리로서 불교의 말겁설과 혼융된 겁운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했다. 1813년 천리교의 임청(林淸)은 교도 이문성(李文成)을 이자성의 환생이라고

90회, "從來劫運皆天定."

11) 『水滸後傳』 제 1회. "大凡天道有個循環, 氣數有個劫運, 國家有個成敗, 善惡有個報應."

12) 『淸實錄』「太宗文皇帝實錄」 2, 9b. 天聰元年三月五日壬申. "一念殺機, 起世上無窮劫運. 一念生機, 保身後多少吉祥."

13) 『甲申傳信錄』 9, 13b-14a. "略曰, 此乃天命, 劫運如此, 借手于闖, 儆戒貪官汚吏, 而諸臣頓忘明朝, 旋受僞職."

14) 명말 청초 사료에서 이자성의 난을 '겁운'으로 기술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甲申紀事』 7, 2b. 「移京省共討逆闖告文」 "此則刦運, 眞遭陽九百六之交, 而凡民並値柱折維裂之會矣." 청나라 사가들은 명의 몰락 원인을 환관 정치로 기술하면서 망국의 운을 '겁운'으로 기술했다. 『明史斷略』 4, 34a. 「魏忠賢亂政」 "謂亡于熹宗之時, 可也. 不幸劫運將至, 百六適逢, 以英明求治, 如懷宗而僅僅, 爲熹宗受禍也 … 明祚之亡在于熹宗, 千古定論."

여겨 '대명순천이진주(大明順天李眞主)'로 추대하고 팔괘교의 삼겁설에 바탕하여 '홍양겁이 다하고 백양겁이 일어난다(紅陽劫盡, 白陽當興)'고 하는 겁운설을 주장하며 자금성을 점거했다.15)

19세기 중엽에 들면서 겁운설은 부란강필서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고, 점차 파괴의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어느 때나 임재할 수 있다는 시간적 모호성을 띠게 되었다.16) 백련교도의 봉기부터 아편전쟁이 있던 이 시기에 관성제군의 계시를 통해 성립한 「구겁문(救劫文)」은 사회적 계층 여하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겁운설로, 그 시간적 불특정성 때문에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 도적이 가면 도적이 오니 언제야 멈출 것인가? 인간 세상이 시체와 뼈로 뒤덮여 언덕을 이루었다. 너희들은 단지 진정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흑적[죽음의 명부]이 전부 소멸하고 (생명의 명부가 있는) 백옥루에 오를 터인데! 아아, 대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위해 벌을 받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유유자적하는 것인가?
>
> 삼가 생각해 보건대 상제의 마음은 어질고 아끼는 것인데 어찌 차마 대겁으로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인가? 그 까닭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왕법이 용인하기 어렵고,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허탄한 것이라 의심하고 내생의 과보를 우원한 것이라 여기니, 할 수 없이 흉신의 손을 빌려 칼날을 내려 일체의 악의 원흉들로 하여금 각기 죄를 받도록 하고, 그로써 족히 삿되고 더러운 기를 소탕하고 어질고 착한 이를 흥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중략)
>
> 이 때 우리(관우와 신성)들이 명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역대 제왕들의 총애를 받고 억만 백성의 제사를 누려왔는데 만일 힘을 다하여 구원하지 않는다면 시동(尸童)처럼 아무 일도 않고 녹을 먹는 신세를 어찌 면할 것인가? 이에 여러 하늘과 땅의 신령들과 함께 금궐에 엎드려 (처벌을) 잠시 늦추

---

15) 『仁宗睿皇帝實錄』 281, 21b-22a. 嘉慶十八年十二月二十四日「御製行實政論」 "加以王畿雜處, 不肖混跡, 倡立邪教, 妄言劫運, 揭竿而起, 直入禁城 … 自十六年夏季, 林淸卽造謀, 定於今歲九月十五日起事, 先搶宮禁, 次劫京城, 旣得此地."

16) Vincent Goossaert, "Modern Daoist Eschatology: Spirit-Writing and Elite Soteriology in Late Imperial China," *Daoism, Religion, History & Society* 6, (2014): 219-246. 왕 치엔춘은 1840년대부터 구겁을 주제로 한 종말론적 강필서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Wang Chien-ch'uan, "Spirit Writing Groups in Modern China (1840-1937)," in *Modern Chinese Religions II*, eds. V. Goossaert, J. Kiely, J. Lagerwey (Brill: Leiden, 2015), 655.

도록 애절히 간청하여 인도하여 교화되기를 기다리겠다 용납하시고, 상소를 인준하시는 은혜를 입어 즉각 속히 개화하도록 하셨다.

이에 도처에서 계서(乩書)를 내리고 수시로 계단(乩壇)에 내려와 목필과 사반으로 천언만언 (가르침을 내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로써 미망에 빠진 이들을 널리 구제했다고 여겼다. 어찌 쌓인 폐해가 바다와 같이 깊어 만회할 방법이 없음을 헤아렸겠는가? 개화한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깨달은 자가 거의 없으니 상제가 이러한 정황을 보시고 우리들이 공허하게 세상을 깨우친다는 명목만 내세우고 백성을 교화의 내실이 없다고 여기셨다. 이에 여러 마왕들에게 명하시어 바로 그날 겁운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들이 개화에 무력한 죄를 다스려 사당을 불태우고 신상을 훼손하신 것은 오로지 이러한 이유이다.[17]

처참한 전란과 재난의 원인이 인륜의 파탄에 있으며 이에 진노한 상제가 인간을 벌하기 위해 '대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구겁문」은 이러한 대겁운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인륜 도덕의 회복을 의미하는 '개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문장으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읽혔다. 청나라에서 대겁운의 전환기에 이르렀다는 위기 인식이 대두된 것은 국내외의 병란이 연발했던 바로 이 시기, 19세기 중반이었으며 각지에서 계시의 형태로 공동체의 재생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의 두드러진 현상은 전쟁과 질병의 발생을 인륜의 파괴로 진단하고 도덕의 회복을 촉구하는 선서(善書)의 출판과 보급이었다. 문인 계층의 효성과 도덕 회복을 고취하는 학문의 신 문창제군, 백성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연단의 신선 여동빈(呂洞賓, 부우제군), 전쟁과 수호의 신 관우(關羽, 관성제군), 이들 삼성제군의 강필서들은 '겁운 구제를 위한 도덕 개화'의 주제를 공유하며 다양한 버전으로 집성되고 출판되었다.[18]

---

17) 1858년 청의 黃啓曙가 출간한 『關帝全書』 24 「救劫文」, 53b-55a (『關帝文獻匯編』 6, 662-665). 조선에서 출판된 『過化存神』(7b-8a)에 수록된 「救劫文」 역시 문자의 異同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다.

18) 관성제군의 강필서의 경전화에 대해서는 Vincent Goossaert, "Textual Canonization of Guandi," in *Rooted in Hope* Vol 2, eds. B. Hoster, D. Kuhlmann, Z. Wesolovski (Sankt Augustin: Routledge), 509-526. 문창 강필서의 집성에 대해서는 胡劼辰, 「清代六種文帝類全書的出版史研究」, 『史語所集刊』 91(2) (2020): 227-292, 여동빈 강필서의 집성에 대해서는 黎志添, 「清代四種 『呂祖全書』 與呂祖扶乩道壇的關係」, 『中國文

2. 조선의 겁운설

조선은 1866년과 1871년 두 차례 프랑스와 미국의 공격을 겪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개항에 이른다. 열강의 침입, 자연 재해, 그로 인한 잦은 민란과 역병의 유행은 동시대 중국과 같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중국에서 겁운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명말 17세기경이라고 한다면, 조선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늦은 18세기경부터 확인된다. 조선의 사료와 문집류에 나타난 겁운 관념에 대해 살펴보면 18-19세기 문헌들 속에서 전쟁과 전염병, 가뭄과 홍수의 자연재해 등, 중국의 겁운설과 공명하는 재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의 유자들에게 '겁운'이란 왕조와 전통 문명의 존속 위기를 가져오는 전란과 망국의 운을 의미했다. 영조 시기의 우의정 이태좌(李台佐)는 1728년 일어났던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대해 "작년의 운수는 실로 망국의 운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망국의 군주가 아니시어 하늘이 돕고 백성이 따르니, 겁운이라 해도 어찌 길게 가고 변하지 않겠습니까?"[19] 라고 하며 정권 탈취의 반역을 겁운으로 인지했다.

이 시기의 격렬했던 붕당 정치의 환국을 겪었던 인사들은 이를 '겁운'으로 묘사하곤 했다. 주로 노론 인사의 글에 보이는데, 윤봉조(尹鳳朝, 1680-1761)는 정미환국을 '사림의 일대 겁운'(士林之一劫運)이라 묘사했고,[20] 이천보(李天輔, 1698-1761)는 1722년 신임사화 때 사형 당한 이종사촌 김운택(金雲澤)을 위한 행장에서 스스로 '수차례 겁운을 겪으며'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21] 사화와

哲硏究集刊』42 (2013): 183-230 참조.

19) 『承政院日記』677, 영조5년(1729) 1월 15일 庚申, "前年之運, 實是亡國之數也. 然殿下非亡國之主, 天助民順, 劫運亦豈長存而不變乎?"

20) 『圃巖集』23「議政府右議政趙公謚狀」"丁未進退, 又爲士林之一劫運." 조도빈(趙道彬)은 정미환국 때 우의정에서 파직당했다.

21) 『晉菴集』8「參判金公行狀」"天輔就別焉, 公悽然泣下曰, 國將亡矣, 吾豈惜一死哉. 嗚呼, 公可謂得其死矣. 天輔閱歷劫運, 居然老白首. … 至公兄弟之事, 不覺悲憤膽裂." 이천보의 생애 동안 노론이 축출된 정변으로는 기사환국(1689), 신임사화(1722), 정미환국(1727)이 있었다.

환국을 겁운으로 묘사하는 것은 조선시대 겁운 개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798년 서장관으로 청에 갔던 서유문(徐有聞, 1762-1822)의 경우, 당시 연행사 일행 중 많은 이들이 병들고 목숨을 잃기도 하여 관왕묘에서 제사를 올려 이를 애도하였다. 서유문의 제시(祭詩)는 임진왜란 때 관성제군이 현현하여 조선을 구한 '재조의 은혜'[再造之惠]를 기리고 관제가 사행단이 마주한 병마를 물리쳐주기를 기원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임진년의 전란을 '용사의 겁운'[뇽사지 겁운(龍蛇之劫運)]으로 묘사했다.22)

또한 유자들은 서학 전래로 인한 전통질서의 혼란을 겁운으로 인식했다.

> 소위 '양학(洋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기에 남쪽으로 복연(濮鉛: 남극)에 들어가지 않고 북쪽으로 무체(無棣: 북극)에 들어가지 않고 동쪽으로 압록강 너머로 나왔단 말인가? 그 학문은 인륜을 어지럽히고 그 권세는 죽이고 살리는 것을 멋대로 하여 사람을 금수로 만들고 의관과 문물을 오랑캐 차림으로 만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2백 년간 그 서적들은 서각에 묶여 있다가 공교롭게도 근일 들어 성행하니, 그 기세가 (『역경』에서 말하는) 야윈 암퇘지보다 더 날뛰는데, 다만 사문(斯文)의 일대 겁운이라고 핑계만 대고 있다. 23)

『홍재전서』의 위 기록은 18세기말 정조 시기의 관료들이 서학의 성행을 '사문' 즉 유교 문명에 임박한 겁운이라 지탄했음을 알려준다. 조선 왕조가 기울어져 가던 19세기말 문인들의 우국의 염을 담은 글에도 겁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유생 이단석(李丹石)은 『시문기(時聞記)』에서 1894년 동학도들의 공주 신소(莘沼) 지역 점거를 "초유의 겁운"으로 기록했다.24) 동학 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

---

22) 『무오연행녹』 2, 5a. 12월 초팔일. 임진왜란의 전란을 겁운으로 묘사한 것은 18세기 문인들의 글에 종종 찾아볼 수 있다. 宋明欽(1705-1768)이 쓴 명륜당중수기에도 임진왜란에 향교가 불탄 것을 유교문명의 '일대 겁운'이라 묘사했다. 『櫟泉先生文集』 13「石城縣明倫堂重修記」 "吾東學校之設, 莫盛於本朝, 兵燹之禍, 莫烈於倭寇. 京外儒宮, 茂艸相望, 實斯文之一大劫運也. 石城舊有鄉校, 燬於龍蛇之亂."

23) 『弘齋全書』 44, 165b. "而何物所謂洋學, 南不入濮鉛, 北不入無棣, 東出于鴨江東? 而學則斁亂. 權顓殺活, 人類而禽獸, 冠裳而魋面. 然而流播二百年, 束閣其書, 不先不後, 熾行於近日,其機凜然, 浮於羸豕, 只諉之於斯文之一大劫運." 실록을 참조하면 이 글은 1795년에 쓰인 것이다. 『정조실록』 43, 정조 19년 7월 25일, 8월 2일.

등을 연이어 겪은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1895년 7월 노성오에게 보내는 서신에 “근년 이래 흉년으로 황폐하고 (전란으로) 동요하니, 겁운이 (어디나) 모두 똑같다”고 토로했다.25)

한편 전염병의 유행을 겁운으로 인지한 예는 윤기(尹愭, 1741-1826)의 기술에 보인다. 그는 1788년에서 1799년 사이, 11년 동안 중국과 조선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독감 유행을 ‘겁운’으로 서술했다.

> 무오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기미년 봄까지 독감이 유행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국[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매우 많아 건륭제도 그 병으로 붕어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열흘 사이에 곧장 서울까지 번져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공경 등 고관을 포함하여 죽은 이가 열에 두셋이었다. 이는 여기(沴氣, 재해의 기운)요 겁운인 것이다.26)

윤기는 이러한 독감의 폐해를 음양 이기의 균형이 깨어져 삿된 기운[邪沴]이 발생하여 돌림병[疫癘, 輪感]이 된 것이라 설명하고, 그 상황은 “참혹하기가 전쟁보다 심하고 위험하기가 사나운 귀신보다 지나치며” 십년 동안의 참상이 “완연히 대겁운을 겪은 듯하다[宛經一浩劫]”고 묘사했다.27)

전염병뿐 아니라 홍수나 가뭄의 재해 역시 겁운으로 기술되었다. 『순조실록』은 신유(1801)년과 임술(1802)년의 홍수 피해 및 기묘(1819)년 여름의 홍수를 겁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28) 철종기 관청의 공문서 기록에는 1854년 공주 일대의

---

24) 『時聞記』 甲午 · 十月二十三日. “東徒萬餘名, 猝入本村. … 一村蕩敗, 大經劫運, 惟以人命之無傷爲幸. 莘自開村以後, 幾百年, 初有之劫運也.”

25) 『勉菴先生文集』 13, 304a. “近年以來, 歉荒驛騷, 劫運大同.”

26) 『無名子集』 詩稿 4, 83. “自戊午冬末至己未春, 毒感遍行. 人言, 自大國而始,死者甚多, 乾隆帝亦崩其疾. 遂越我國地境, 旬日之間, 直抵京都, 人無得免者, 而公卿以下死者十二三. 蓋沴氣劫運也.”

27) 『無名子集』 詩稿 4, 83. “二儀漭轇轕, 氣或有邪沴. 發爲生民害, 種種非一例. 兆眹見災眚,浸淫祟疫癘.” … “酷慘甚兵革, 凶險過鬼厲 宛經一浩劫, 滄桑閱此世.”

28) 『純祖大王實錄』 14, 十一年 · 三月 · 戊寅 (1811년 3월 30일). “自經辛壬大水, 便一劫運, 疆界無分.” 22, 十九年 · 七月 · 甲申 (1819년 7월 24일). “人命之漂沒, 田廬之洗盪, 殆無紀極, 直一劫運, 怛然驚心, 無以爲喩.”

참혹한 홍수 피해에 대해 “대체로 고르게 겁운을 만났다”고 기술했다.[29] 고종기 호남 지방의 공문서에는 “병자년의 가뭄에 온 밭이 황무지가 되었고 정축년의 역병에 온 마을이 텅 비었다”고 하여 1876년의 가뭄과 1877년에 발생한 전염병에 대해 “병자 · 정축의 겁운”[30]으로 기록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볼 때, 조선 후기에 전란 및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겁운 관념이 정착해갔음을 알 수 있다.

3. 삼성제군의 구겁과 개화

조선 후기에 이러한 겁운 관념이 도교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의식되고 있었을까? 이규경(李圭景, 1788-?)이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도장류(道藏類)」에서 『수서 · 경적지』의 도경편의 내용을 인용하여 도교의 우주론과 겁운설을 소개한 예를 보면[31] 그러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시대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교에 국한된 개념이라기보다 우주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파괴적 시간으로 사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겁운 관념이 조선 말 민간에 폭넓게 공유된 배경으로는 삼성제군 관련 도서의 보급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청나라와 조선을 왕래하던 북학파, 연행사 일행인 서장관과 역관들을 통해 삼성제군 관련 서적이 조선으로 들어왔고 관왕묘의 주제관(主祭官)과 무상단(無相壇) 인사, 고종의 신료들에 의해 새로 편찬 · 인쇄되고 언해본의 보급이 병행되었다.[32]

---

29) 『忠淸監營啓錄』 哲宗五年六月三十日, “蓋是均値劫運.”

30) 『湖南啓錄』 全羅道報牒, 高宗十六年(1879) 六月, 64. “自經丙丁之劫運, 便作滄桑之幻界. 年穀之大無, 近古未聞, 癘疫之孔酷, 全省所罕”, “丙子之旱, 全坪荒蕪, 丁丑之疫, 闔村空虛.”

31) 『五洲衍文長箋散稿』 39 道藏類 「道敎仙書道經辨證說」, 199. “隋·經籍志, 道經云者, 厥初有元始天尊, 生於太元之先, 稟自然之氣, 沖虛凝遠, 莫知其極, 天地淪壞, 劫數終盡, 略與佛經同.” 해당 인용 부분은 『文獻通考』 224 「經籍考」 子部 · 神仙家 등, 중국의 正史類에서 도교의 기원과 겁운에 대한 설명으로 거듭 인용되던 부분이다.

32) 김윤수, 「고종기의 난단도교」, 72; 김윤경, 「19세기 조선 최초의 교단 도교 무상단 연구」, 133-135, 145; Kim, “Enlightenment on the Spirit-Altar,” 3-4, 10-13, 22-23 참조. 『北遊詩草』(1874)의 저자 이건창은 서장관으로 중국에 갔다가 문제묘에 배알하고 문창제군상

청초 1668년 관성제군의 계시로 성립된『각세진경(覺世眞經)』은 사람들을 깨우쳐 악행을 벌하고 선행을 실천하도록 권하는 선서로, 19세기 조선에서『과화존신(過化存神)』이라는 제목 아래 한문·언문 병행본이 대량 인쇄되어 널리 읽혔다.[33] 여기에 함께 수록된 것이 앞서 인용한「구겁문」이고 그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추기되어 있다. "한 장을 써서 사람에게 전하면 일신의 겁운을 면할 수 있고, 열 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한 가문의 겁운을 면할 수 있고, 백 장을 세상에 전하면 한 지방의 겁운을 면할 수 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열 곳에 전하고 열 곳에서 백 곳에 전하면 겁운이 저절로 무로 돌아갈 것이다."[34]

「구겁문」의 필사와 전도를 통해 겁운을 면할 수 있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바로 뒤에 부기된「대련구(對聯句)」에는 탐욕하는 마음[貪心], 도둑질하려는 마음[盜心], 음란한 마음[淫心], 간사한 마음[詐心], 속이고 저버리는 마음[欺負心]이 병란의 겁[兵劫], 역병의 겁[瘟劫], 수재의 겁[水劫], 화재의 겁[火劫], 벽력의 겁[霹靂劫]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다음과 같은 지침을 덧붙이고 있다. "이 글은 만일 글자를 모르는 이를 만나거든 글자를 아는 이가 읽어주고 공손히 기록하여 널리 사방에 붙이고 먼 곳까지 전파하도록 하면 더욱 그 공을 더할 것이다."[35]

뒤에는 16세기말 강소·절강·복건성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왜구 침략 시 관제가 현현하여 승전한 이적과『각세진경』수천 장의 배포를 통해 병이 낫고 장수

이 그려진 족자와 함께 문창제군의 권효문, 음즐문, 영험기를 모아 1876년『南宮桂籍』으로 간행했다. 남관왕묘의 주제관 서정은 중국에서 관성제군 관련 책을 구입하여 조선에서『관성제군성적도지』를 간행했다. 김윤수는 서정이 역관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33)『각세진경』은 남송기『태상감응편』과 명대『음즐문』의 내용을 답습한 권선서이며, 세책이 '三聖經'으로 여겨져 동아시아 전역에서 읽혔다.『각세진경』의 성서 연대에 대해서는 현존 문헌 중 오직 조선에서 간행된『關聖帝君聖蹟圖誌續集』(1, 1a)에만 '康熙七年戊申夏日'로 명시되어 있다. Kim, "Enlightenment on the Spirit-Altar," 7.『과화존신』에 대해서는 김일권,「조선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제군 신격과 명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도교문화연구』51 (2019): 65-108 참조.

34)『過化存神』7b-8a「救劫文」"錄一張以傳人者, 可免一身之劫, 錄十張以傳人者, 可免一家之劫, 傳百張於世者, 可免一方之劫. 由是一傳十, 十傳百, 而劫自歸於無有矣." 언해는 9b-10a.

35)『過化存神』14a-b.「附對聯句」"此文, 若遇不識字之人, 識字者可讀之, 使聽恭錄, 徧貼四方, 傳播遠處者, 更加有功."

와 복록을 누린 영험기가 이어진다. 이러한 영험기와 실행 지침은 한문을 아는 식자층이나 한문을 모르는 서민층을 불문하고 인쇄와 필사, 심지어 구송을 통해 경전 전파의 연쇄를 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 세상을 깨우치는 경전(각세진경)이 만법에 대해 설명을 다했고, 겁운에서 구원하는 큰 가르침(구겁문)이 천 가지 방편을 다 갖추었으니,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36]

이는『과화존신』말미에 첨가된「교유문」의 인용이다. 주목할 점은「교유문」이 중국 문헌의 인용이 아니라 고종기 관왕묘에서 강필에 의해 성립된 조선의 문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겁운에 대한 위기의식과 해결에 대한 요청이 고종기 조선인들의 무의식을 통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계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성계집(聖乩集)』이다. 이에 따르면 1876년『관성제군성적도지』간행 시에 있었던 '강계(降乩)', 즉 관제가 내린 계시 중에「배심성훈」과「교유문」이 있었고, 이를 출간하여 배포하라는 교지가 있었다.[37] 당시 동관왕묘의 주제관은 이준모(李駿謨, 별명 李瑨謨, 李瑨淳)였고 영매를 담당한 인물은 정학구(丁鶴九) 또는 김희정(金熙鼎)으로 추정된다.「교유문」은『관성제군성적도지속집』에도 수록되었다.

겁운 구제의 내러티브는 관성제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동시기 문창제군과 부우제군의 강필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1743-44년 청의 유체서(劉體恕)가 문창제군과 부우제군의 계시 문헌을 집성하여『문제전서(文帝全書)』와『여조전서(呂祖全書)』를 간행한 이후 증보와 중간이 거듭되었고, 조선에서는 1881년 최성환(崔瑆煥, 1813-1891), 서정(徐珽), 유운(劉雲, 1821-1884)을 포함한 무상단

---

36)『過化存神』21a.「敎諭文」"覺世之寶經, 萬法說盡, 救劫之大訓, 千方設具, 讀耶不讀耶, 行耶不行耶?"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교유문은 한문만 있으나, 장서각 소장본은 언해가 구비되어 있다. "각세ᄒᆞᄂᆞᆫ 보비 경문에 만 가지 법을 말숨이 다 ᄒᆞ고 구겁ᄒᆞ난 큰 훈계에 천 가지 방도를 가초 베푸러ᄂᆞᆫ 이익ᄂᆞᆫ야 안이억ᄂᆞᆫ야 힝ᄒᆞᄂᆞᆫ야 안이 힝ᄒᆞᄂᆞᆫ야." 장서각소장본 45-46.

37)『聖乩集』41a. "二月初十日. 丙子聖蹟圖誌開刊時, 降乩中, 拜心聖訓, 與敎諭文, 因夢事, 刊出布傳之意, 伏告矣."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두 총서의 발췌본에 조선의 강필문을 더하여『계궁지(桂宮誌)』와『중향집(衆香集)』을 간행했다.

여기에 수록된 경전 중, 1702년 호북(湖北) 강하현(江夏縣) 함삼단(涵三壇)에서 여동빈의 강필에 의해 성립한『청미대승도겁삼품진경(淸微大乘度劫三品眞經)』(이하『삼품경』)[38]과 문창제군의 계시로 성립한『구겁경(救劫經)』[39]은 겁운설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경전이다.

『삼품경』은 "하방의 중생들이 악행이 과다하여 겁운이 심중함[下方衆生, 惡孼過多, 劫運深重]"을 염려하여 계시한 경전이며,『구겁경』은『태상감응편』과 함께 암송하고 선행을 행하면 모든 죄악과 겁운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주 내용으로 한다.[40]

> 나는 겁운이 세상에 임재했는데 사람들이 악행을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십악대마 삼백만, 비천신왕 삼백만, 신병신장 천육백만을 보내어 오도뇌신으로 하여금 통솔하여 악인들을 잡아들이도록 했다. 또한 대풍(大風), 대우(大雨), 대수(大水), 대화(大火), 대역(大疫)을 나란히 일으켜 악인들을 잡아들이고 그것으로 겁운을 채우게 하였다. … 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매일 이른 새벽 옥황대천존현궁고상제, 심성부감태을구고천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허사상현천상제금궐화신천존 4위 성호를 염송하고 초하루와 보름날에는『구겁경』과『태상감응편』을 한 번씩 송경하면 죄와 잘못이 사라질 것이다.[41]

---

38) 유체서는 1744년『여조전서』32권을 간행했고 1775년 邵志琳이 64권으로 증보했다. 여러 판본에 대해서는 黎志添,「淸代四種『呂祖全書』與呂祖扶乩道壇的關係」참조.『三品經』은 邵本『呂祖全書』9-11,『衆香集』1에 수록되었다.

39)『문제전서』는 유체서가 貴州의 知縣으로 재직시, 金本存의 鱣壇에서 받은 문창제군의 강필서를 모아 출판한 총서다. 1743년 32권으로 출간 후, 1775년 關槐가 50권으로 증보했다. 조선에 들어온 판본은 후대의 중간본이다.「救劫經」은『文帝全書』11 및 1768년 朱珪의『文帝書鈔』9, 조선의『桂宮誌』에는 권1에 수록되었다.『道藏輯要』에는『元皇大道眞君救劫寶經』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40)『救劫經』은 '永嘉壬申', 312년에 계시한 것이라 설해지나 성립연대는 18세기로 추정된다.

41)『救劫寶經』(『桂宮誌』1) 83b-84a. "吾愍劫運之臨世, 人造惡無有窮已. 今遣十惡大魔三百萬, 飛天神王三百萬, 神兵神將一千六百萬, 以五道雷神主之, 收取惡人. 又大風, 大雨, 大水, 大火, 大疫竝作, 以收惡人, 用充劫運. … 今勸世人每日侵晨持誦, 玉皇大天尊玄穹高上帝, 尋聲赴感太乙救苦天尊,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

사실 '구겁과 개화'의 신성으로는 삼성 중 문창제군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창신은 고대의 문창성(文昌星) 신앙과 관련이 깊으나 사천(四川) 지역의 재동신(梓潼神)에서 기원하여 송대 이후 강필을 통해 거듭난 신성이다. 재동신은 육조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사천 지역의 수신(水神)으로서 장악자(張惡子), 장아자(張亞子)로 불리다가, 당대 이후 사천 지역에 피신하여 수호의 영험을 받았던 황제로부터 존호를 받기 시작하여 신앙이 확대되었고 과거제도가 확립된 송대에 이르러 과거와 학문의 신의 성격이 부과되었다.[42] 1089년 북송 철종이 내린 봉호 '보원개화문창사록제군(輔元開化文昌司祿帝君)'은 이러한 교화와 과거의 신으로서 문창제군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정강의 변(1126)을 겪으며 남송기를 맞이한 12세기에 문창신은 구겁의 신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해졌다. 『문창대동선경(文昌大洞仙經)』과 『문창화서(文昌化書)』 등 사천 지역에서 성립한 경전들이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문창은 효성 깊은 인물로 천계에서 역귀를 물리치는 경전과 부적을 받고 그 힘으로 홍수와 역병을 멈추고, 혼란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화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신으로 그려진다.[43] 남송 1168년 사천 유안승(劉安勝)의 강필단에서 받

虛師相玄天上帝金闕化身天尊, 四位聖號, 朔望誦救劫經竝太上感應篇一遍, 以消罪愆." 『계궁지』에 수록된 구겁경은 『도장집요』와 『문제서초』 수록본과 동일하다. 『문제전서』(關本)는 '태상감응편' 대신 '음즐문'이라 기록하고 있다.

42) 당대 이후 재동신에 내려진 역대 봉호에 대해서는 『桂宮誌』 8, 57a-b 「歷代爵號」 참조. 사천 지역의 지방신이었던 재동신이 원초 촉지 함락을 계기로 강남지역에 진출했던 촉지방 출신 사인들에 의해 재동제군묘가 확산되고 학문의 신으로 변모해간 과정을 고증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森田憲司, 「昌帝君の成立-地方神から科學の神へ」, 『中國近世の都市と文化』, 梅原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4), 389-418. 원나라 초기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문창 신앙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1316년 원나라 仁宗이 과거를 재개하면서 북송말 존호에 '弘仁'을 추가하여 '輔元開化文昌司祿弘仁帝君'이란 봉호를 내렸다.

43) Terry Kleeman, "The Expansion of the Wen-ch'ang Cult," in *Religion and Society in T'ang and Sung China*, eds. P. B. Ebrey and P. N. Greg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3), 45-73; Terry Kleeman, *A God's Own Tale. The Book of Transformations of Wenchang, the Divine Lord of Zito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재동신과 문창제군에 관한 최근 연구는 謝聰輝, 『新天帝之命:玉皇‧梓潼與飛鸞』 (臺灣: 商務印書館, 2013) 참조.

은 문창제군의 긴 존호 중에는 구겁을 강조한 '구겁대자비갱생영명천존(救劫大慈悲更生永命天尊)'이 현저하게 사용되었고,[44] 고종기 문창제군의 성호도 '경문에 대해 담화하고 가르침을 베풀어 겁운을 소멸하고 교화를 행하는, 재생과 영원한 생명의 천존'이란 뜻의 '담경연교소겁행화갱생영명천존(談經演敎消劫行化更生永命天尊)'이었다.[45]

청나라에서 문창제군 제사는 관성제군 제사와 함께 백련교의 난이 진압된 1801년 국가 사전에 편입되었다.[46] 이 시기에 편찬된『도장집요』에서도 삼성의 구겁의 성격은 강조되었고, 이러한 문헌들을 수용한 조선에서도 삼성이 겁운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개화하는 신성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 관성제군은 … 천제의 칙명을 받아 문창 · 부우 양 제군과 함께 개화의 임무를 맡아,
> 문창제군은 … 관제와 여조와 함께 천제의 칙명을 받아 천하를 개화하고,
> 부우제군은 … 선화의 임무를 받아 문창 · 관성 양 제군과 함께 … 고통에서 구원한다.[47]

『중향집』 편찬에 적극 관여했던 당시 가의대부 김창희(金昌熙, 1844-1890)는 "중향집은 부우제군께서 성인의 경지를 이루고 세상을 구제하는 책이다. … 과거 성인들의 뜻을 계승하고 겁운의 시대를 구하고 미래에 내리는 법문이 찬연히 서책 한 부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했고,[48]『계궁지』에 서문을 쓴 당시 훈련대장 신정희(申正熙, 1833-1895)도 이와 같은 구겁의 내러티브를 공유했다.

---

44)『太上無極總眞文昌大洞仙經』과『淸河內傳』의「天封聖號」중 '救劫大慈悲更生永命天尊'이 보인다.

45)『桂宮誌』8, 47a-b「更生永命天尊誥十一」및『三聖訓經』8a-b「文昌帝君寶誥」.

46)『淸史稿』「禮志 · 吉禮」, 2542. 文昌帝君 "嘉慶五年, 潼江寇平. … 明年(1801)夏告成, 仁宗躬謁九拜, 詔稱, (文昌)帝君主持文運, 崇聖闢邪, 海內尊奉, 與關聖同, 允宜列入祀典." 咸豐六年(1856)에 中祀로 승격되었다.

47)『三聖訓經』「三聖事實」, 1a-b. "關聖帝君 … 受天敕, 與文昌 · 孚佑兩帝君, 職任開化.文昌帝君 … 與關帝 · 呂祖, 同受天敕, 開化天下. 孚佑帝君 … 受宣化之職, 與文昌 · 關聖二帝君, … 救苦扳沈."

48)『衆香集』1, 3a. 金昌熙序. "衆香集者, 我孚佑帝君, 成聖度世之書也. … 凡所以繼往聖, 救時劫, 垂來法者, 燦然咸備於一部之書."

> 말세가 돌아오니 성인이 일어나지 않고 신성한 도가 이에 따라 자취를 감추자, 대지의 인간들은 악행을 지어 그치지 않으니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장목(관우) · 문창 · 부우 삼성이 연이어 나와 광막한 겁의 시간을 넘나드니 그 공덕은 흠없이 완전하고 (구원의) 자비로운 서원은 크고도 깊다. (천제로부터) 현호를 받고 밝은 천명을 계승하여 선행으로 인도하고 미혹을 일깨우는 것을 자신들의 소임으로 여겨, 천년이 넘도록 신령의 위엄을 크게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나 교화를 행하여 다함없으니, 신주(중국)의 중생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이가 없고 사당을 세워 신상을 모시고 다만 훗날을 두려워할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 동토에서는 만력 용사(임진 · 계사)의 난에 처음 관성제군이 현현하여 보우하신 기적이 일어나 동묘와 남묘를 나란히 세워 조정과 양반 가문이 숭봉하고 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독 문창 · 부우 양 제군을 모시는 예전이 없어 일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서정이 삼성의 가르침을 독실히 믿고 널리 선행을 행하니 가히 명계와 현생의 이치에 통달했다 할 만하다. 처음 두 성인의 초상을 연경에서 구해오고 동지들과 논의하여 먼저『관제성적도지』○○권을 간행하고 이어서 두 성인의 난서를 간행하니,『계궁지』○○권은 문창의 계시요,『중향집』○○권은 부우의 강필이다. 모두 서정이 중국에서 널리 구해 오고 단회에서 받은 문장을 모아 완성한 것이다.[49]

관성 · 문창 · 부우 삼성제군의 강필서의 간행은 고종의 측근 문무신료들이 개입하여 개화의 성전(聖典)을 모은 '개화장(開化藏)'으로 기획되었다.[50] 그리고 이는 곧 구겁을 위한 중요한 실천 중 하나였던 것이다.

---

49)『桂宮誌』1, 3b-4a. 申正熙序. "叔季以還, 聖人不作, 而神道隨隱, 大地之人, 作惡不已, 莫可救止. 于是焉, 壯繆 · 文昌 · 孚佑, 三聖繼作, 出入曠劫, 功德圓滿 悲願弘深. 誕膺顯號, 祇承明命, 導善牖迷, 以爲己任, 千有年來, 威靈赫濯, 顯化無窮. 神州之衆, 罔不信從, 建祠葆像, 惟恐或後. 而惟我東土, 萬歷龍蛇之難, 始徼關聖顯佑, 剏建東南二廟, 朝家尊奉, 衆庶駿奔. 而獨於文昌 · 孚佑, 未遑盛典, 事有待也. 徐君珽篤信聖誥, 廣行善事, 可謂達於幽明之故者矣. 始求二聖睟容于燕楂, 謀於同志, 先刊關帝聖蹟圖誌若干卷, 繼刊二聖鸞書, 桂宮誌幾卷, 爲文昌乩宣, 衆香集幾卷爲孚佑降筆, 是皆徐君廣購中朝, 薈粹壇會而成者也."

50) Kim, "Enlightenment on the Spirit-Altar," 21-23.

Ⅲ. 질병의 치유: 의약방과 퇴마

전란, 역병, 가뭄, 수재가 겹운 임재의 징조로 여겨진 가운데, 19세기말 조선의 콜레라와 천연두 유행은 대겁운의 위기의식을 증폭시키기 충분한 것이었다. 삼성 경전의 반포가 이러한 겁운으로부터의 구제와 개화를 위한 것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장에서는 19세기 한성 관왕묘를 중심으로 행해진 구체적인 질병 치유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관왕묘에서 처방된 의약방들이 전통 의약학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중국과 조선의 의서와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보고, 의약처방과 소마(消魔), 경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1. 질병과 의약방

중국 의학의 질병관은 기(氣)의 세계관 위에 성립되었고, 질병은 기의 운행 이상으로 심신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기 순환의 항상성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은 감정의 과불급과 신체 활동의 내인(內因), 음식과 외기(外氣)의 영향이라는 외인(外因)으로 대별된다. 병을 일으키는 외기의 범주에는 추위 · 더위 · 습도[寒暑燥濕] 등 기후요인뿐 아니라 역귀(疫鬼)와 사기(邪氣)도 포함되었다. 중국 의학을 특징짓는 경맥 관념의 원형은 체내에 침입한 '역귀의 통로'였고, 병이란 역귀가 지나가면서 정상적인 맥의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이었다.[51]

전국 시대 도가의 기론은 중국 의학의 기초 이론이 되어주었지만, 육조시대 전후의 교단 도교는 전문적인 침술과 경맥 이론을 발달시킨 의가와 단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의 질병관은 의학의 병인론과 중요한 관념들을 공유했다. 특기할 점은 도교에서 일찍부터 질병과 윤리를 직결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태평도와 천사도 등, 초기 도교 전통에서 병의 원인은 사기의 침입 외에, 개인과 가문의 도덕적 불선(不善)에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는 계율 위반과 죄에 대한 고백 및 참회가 선행되어야 했다. 조상이 지은 잘못으로 인해 피

51) 山田慶兒,『中國醫學の起源』(東京: 岩波書店, 1999), 71-77, 454-457.

해자 집안의 원혼이 명계에서 소송을 일으키거나 가해자 집안에 저주[注氣, 祟]를 내려 병을 일으킨 경우, 도사는 천계에 장문을 올려 소송을 해결하고 질병을 일으킨 귀를 잡아가도록 하는 상장(上章) 의례를 행하였고, 개인의 질병의 경우에는 소마(消魔)의 힘을 담은 부적을 태운 물, 부수(符水)를 마시게 하거나 존사(명상)를 통해 몸속에 침입한 사기를 소멸시키는 정화의 방법을 취했다.52)

중국에서 도교의 치유법과 의학지식이 본격적으로 접목된 것은 송대 이후, 국가에서 선발하는 도관(道官) 시험에 내경(內經) 의학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송대 이후 생겨난 '도의(道醫)'라는 용어가 알려주듯 의술을 익힌 도사는 송대 이후 급증하여 금원 사대의가 중 도교 내단법의 영향이 현저한 의학이론이 등장할 정도로 의학과 도교의 관계가 밀접해졌다. 명대에는『활인심법(活人心法)』의 저자로 유명한 왕자 주권(朱權, 1378-1448)을 비롯하여 왕족과 사회 상층부가 내단법과 양생법을 향유하면서, 양생총서를 연이어 발간하며 도교 의학과 양생방을 대중화시켰다.53) 이러한 도교적 치병 방식에는 부적과 의례를 통한 치유법에 더해 경맥 의학과 본초학에 기반한 침구 및 약물 치유법이 공존하게 되었다.

조선과 동시대인 명청대의 일반 의학 상식에 대해서는 16세기 이래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담은 일용유서(日用類書)가 큰 시사점을 준다. 17세기에 편찬된『묘금만보전서(妙錦萬寶全書)』의 경우, 의학과 건강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진문(修眞門), 양생문(養生門), 의학문(醫學門), 전영문(全嬰門), 법병문(法病門)이다.54) 수진문은 도교 내단법과 함께 화타

52) 吉元昭治,『道教と不老長壽の醫學』(東京: 平河出版社, 1989); 蓋建民,『道教醫學』(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

53) 蓋建民,「明淸道教醫學論析」,『宗教學硏究』2000(1) (2000): 25-30; 馬麗雯,「明代道教醫學發展新考」,『宗教學硏究』2020(1) (2020): 79-83. 가이젠민은 명대 도의는 전체 의가 중 7프로 정도로 소수였고 의학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다고 평가했으나, 최근 마리웬의 연구는 명왕실의 도교 문화 향유와 총서 출판 사업 등이 사회 각 계층으로 도교 의학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논하고 있다.

54)『妙錦萬寶全書』(中國日用類書集成14, 東京: 汲古書院, 2004).『묘금만보전서』는 1612년 간행되었다. 이와는 다른 책이나 19세기 조선에『增補萬寶全書』가 유통된 흔적이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增補萬寶全書』는 1823년 간본이다. 일용유

오금법(華佗五禽法), 팔단금법(八段錦法) 등의 도인법(導引法)과 육자결(六字訣)의 호흡법을 소개하고, 양생문은 위생가(衛生歌), 양생명(養生銘) 등을 중심으로 식이요법과 섭생법을 계몽하며, 전영문은 소아과 및 산과 지식을 담고 있다. 의학문은 맥진법과 간단한 병증 진단법, 약재와 독약의 종류, 자주 발생하는 질병 - 상한(傷寒), 한서습풍(寒暑濕風)으로 인한 병, 학질(瘧疾), 설사, 기침, 곽란(霍亂), 수종(水腫), 부인병 등에 대해 증상별로 활용 가능한 의약방, 오장의 허실(虛實)을 보사(補瀉)하는 약재, 계절별 약방[用藥活套] 등이 열거되어 있다. 법병문(때로 祛病門)은 도교의 치유법이 어떻게 일상지식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병을 다스리고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한 이 섹션에는 약처방은 없고 특정한 날과 증상에 따라 병을 일으킨 귀(鬼)와 괴기(怪氣)를 제거하는 부적 쓰는 법만 게재되어 있다.[55](그림1)

그림1『묘금만보전서』법병문

다시 말해 16세기 이래 명청대의 통속적인 '상식'에 의하면 질병이란 귀신이 야기하는 것이고 부적은 귀신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치병의 도구였다. 조선 시대의 주된 병인론 역시 귀기(鬼氣)의 체내 침입에 의한 것이었으니[56]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질병에 부적을 쓰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상식'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에 대해서는 酒井忠夫,『中國日用類書史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2011) 참조.

55)『妙錦萬寶全書』3, 397-420.

56) 김두종은 조선시대의 병리설은 고려시대에 유입된 금원사대가의 五運六氣說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金斗鍾,『韓國醫學史』(探究堂, 1966), 164-170, 284. 그는 원시의학 및 전염병에 관해서만 精靈病因說에 대해 언급하고(11-21, 423-424), 전체적으로 음양오행의 기론에 입각한 설명에 주목하며 귀기설을 회피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 의서 속에서 귀기는 외기의 하나로 끊임없이 언급되며, 특히 귀기 병인론은 역병 관련 논의 속에 부각된다. 卞廷煥,「朝鮮時代의 疫病에 關聯된 疾病觀과 救療施策에 관한 研究」,『東西醫學』10(1) (1985): 45-63.

조선시대에는 중국처럼 천문, 지리, 역사에서 농법, 의학을 망라한 일용유서가 편찬되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16세기부터 구급, 임신과 출산, 전염병 대처법을 담은 언해본 의서가 보급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일상적 의학지식이 구축되어 나갔다. 한편 19세기 조선의 의학 지식을 잘 알려주는 책으로는 1868년 황도연(黃道淵)이 편찬한『의종손익(醫宗損益)』12권이 있다. 이는 방대한 동의보감 내용을 실용에 편리하도록 압축한 것으로, 뒤이어 편찬된『의방활투(醫方活套)』(1869)와 황도연의 아들 황필수(黃泌秀)가 펴낸『방약합편(方藥合編)』(1885) 역시 병명에 따라 처방전을 찾기 쉽도록 정리한 책이다. 이러한 의서들은 학식이 깊지 않은 의가들도 치료에 편리한 '간요 의학(簡要醫學)' 서적이라 평가된다.[57]

관왕묘에서 계시된 의약방에 대해 조선시대 의서의 기록과 비교 검토할 때, 시기적으로는 황도연의『의종손익』을 포함하여 19세기 의서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겠으나, 이 시기의 의서들이 대개『동의보감』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므로 주로『동의보감』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통치약 이즙[梨汁]

1876년에서 1880년까지 한성 관왕묘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성계집』의 기록에 따르면, 서민들에서부터 양반과 왕족에 이르기까지 관왕묘에서 보편적인 치료약으로 처방된 것은 '배즙'이었다.

> 광서 2년 (1876) 병자 7월 27일 밤, 이승억이 남관왕묘에서 꿈을 꾸었다. 꿈에서 이준모를 방문했는데 그 집에 도착하니 둘째 아들 부부가 모두 병을 얻어 위독한 상태라고 했다. 이승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찌『각세진경』수천 권을 인쇄하여 참회하고 업보를 없애는 기초로 삼지 아니합니까?" 바로 그 때 키가 크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훌륭한 장부 한 사람이 표연히 자리에 나타났다. 승억이 여쭈었다. "어르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관왕묘에서 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 집 주인 아들과 며느리의 병은 배즙을 사용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승억은) 꿈에서 깨어나 이를 기이하게 여겨 준모의 집을 찾아가 보니

57) 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京都: 思文閣, 1963/1991), 257-260. 金斗鍾,『韓國醫學史』, 456-458.

> 과연 병환으로 근심 중이었다. 이승억은 경전을 인쇄하여 보시하기를 권유했고 또 한 배즙을 마시게 했다. 병든 두 사람은 쉽게 차도를 보였다. 이준모는 (그 처방전으로) 다른 여러 증상을 치료했는데, 시험할 때마다 효험이 있었다.[58]

이 기록은 『관성제군성적도지속집』에는 '만병통치약을 하사받다'[賜方通治]라는 부제를 달고 수록되어 있다. 이승억은 관왕묘에서 출판 관련 일을 맡아 목판에 글씨를 새기던 각공이다.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판각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십 대 때부터 관제 꿈을 꾸었고 『전집』 출간 시 의문이 드는 곳은 꿈에서 질의하는 등 꿈에서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 '청몽자(淸夢子)'라는 도호를 받았다.[59] 이준모는 『성계집』의 기록을 담당한 동관왕묘의 주제관으로 관제의 강계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각세진경』 독송에 힘썼다.[60]

치병을 위해 『각세진경』의 배포가 핵심적이며 배즙이 통치약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렇지만 왜 배즙이 통치약으로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배즙은 본초학에서 풍열(風熱)로 인해 말을 못하거나 상한 등 유행성 열병의 해열과 해갈제로 사용되었고,[61] 『동의보감』에서도 각혈이나 토혈, 인후의 질병을 치료하고 해열제로 처방되었다. 중풍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나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날 때 배즙을 복용하도록 했다고 하니,[62] 대부분의 질병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발열 증상에 대해 해열과 수분 공급용으

---

58) 『聖乩集』 1a-b. 『關聖帝君聖蹟圖誌續集』 3 「靈感考」 前52b. 「賜方通治」 "光緖二年丙子, 七月二十七日夜, 李承億南廟內得一夢. 夢中訪李駿謨, 而至其家, 聞其次子夫妻, 俱病瀕危. 承億曰: 何不印施覺世經數千卷, 以爲懺悔消業之地? 適有一偉丈夫, 頎容美髯, 飄然入坐. 承億問: 長者何來? 答曰: 吾自關廟承命以來. 主人兒與媳婦之病, 用梨汁可瘳云. 覺而異之, 往探駿謨, 則果在憂悶中. 承億勸施印經, 且飮以梨汁. 二病之人, 隨手卽瘥. 駿謨通治他證, 屢試屢驗."

59) 『續集』 3, 50a-b. 「賜號淸夢」 "李承億家貧失學, 食於繡梓, 自弱冠時, 夢謁聖帝, 屢承靈感. 丙子刊誌之役, 口誦眞經手刻, 心有所疑, 夢必仰質."

60) 『聖乩集』 3a. 「蒙恩降乩」 "李瑨謨丁丑正月初一日, 南廟致誠時, 身數吉凶, … 因此籤意, 家中諸人, 日誦過化存神 · 覺世眞經矣."

61) 『本草綱目』 3, 「百病主治藥」 諸風 · 風熱濕熱 · 穀果. "梨汁, 除風熱不語. 傷寒熱病, 和解", 果部 "梨汁, 熱毒煩渴."

62) 『東醫寶鑑 · 雜病篇』 2, 37b. 「風」 單方 · 梨. "治中風, 失音不語, 煩熱. 取梨汁, 服一合, 日三."

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콜레라의 처방: 소합원(蘇合元)과 강즙(薑汁)

1879년 7월에는 부산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전국에 유행했다.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는 부산항의 관리관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의 「한인(韓人)의 콜레라 감염 상황을 보고함」(문서번호 128)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첨부된 경위서에 의하면, 1879년 "7월 23-4일경부터 부산진(釜山鎭)에 괴질(怪疾)이라 부르는 토사병(吐瀉病)으로 2-3명이 사거(死去)"했으며, "7월 28일부터 다음날 29일 정오까지 20명이 토사한 지 두 세 시간 후에 사망"했고, 진찰 결과 이는 모두 "진성 콜레라로 그 병세가 극렬하였다"고 보고했다. 콜레라의 유행에 조선 조정은 죄수들을 사면하고 별여제를 지냈다. 당시 1879년 7월 25일 관왕묘에서는 콜레라 처방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 7월 25일 (괴질의 일로 인해 삼일 동안 복축한 뒤 가르침을 받았다)
> 성제가 가르침을 내리셨다. "이번 유행병은 극히 위험하니 11-12세 아동은 약재를 후하게 써야 한다. 생강즙을 내어 또한 후하게 화합하고, 뒤에 소합원 두 개를 조제하여 미리 복용시켜보고 여전히 효험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다시 교지를 받아야 한다." 명을 받고 깨어났다.[63]

'소합원'은 소합환(蘇合丸), 소합향환(蘇合香丸) 등으로도 불리는데, 중국 송대에 고안된 약방이다.[64] 『동의보감』에 따르면 중기(中氣)·상기(上氣)·기역(氣逆)·기울(氣鬱)·기통(氣痛) 등 모든 기병(氣病)의 치료에 사용되는 통치기약(通治氣藥)이다. 백출, 목향, 침향, 사향, 정향, 안식향, 백단향, 주사, 서각, 가자피,

---

63) 『聖乩集』 50b. "七月二十五日(以怪疾事, 三日伏祝後, 奉敎). 聖帝敎曰, 時疾極險, 十一二歲兒童, 便從厚. 取得薑汁, 亦從厚和合, 後調蘇合元二箇, 式預爲服之, 而若未見效, 則從當更敎. 承命而覺."

64) 蘇合香圓은 북송 휘종기에 편찬된 『太平聖惠方』(992년 편찬)과 陳師文 등이 1107년 간행한 『太平惠民和劑局方』 3 「治一切氣」에 보인다. 『화제국방』의 처방전은 조선초 『의방유취』에 다수 수록되었고, 『화제국방』 역시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송대의 소합원 처방은 조선후기 『납약증치방』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향부자, 필발 각 2냥에 소합유, 유향, 용뇌 각 1냥을 약재로 하여 가루를 내거나 안식향으로 만든 고약과 졸인 꿀과 섞어 환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2-3알씩을 정화수나 따뜻한 물이나 술, 생강탕[薑湯]에 녹여 먹도록 했다.65)

콜레라의 일반적 증상은 복통과 구토와 설사, 그리고 이로 인한 탈수 증세이다. 그와 유사 증상을 보이는 온역(溫疫), 역질(疫疾), 곽란(霍亂) 등에 소합원에 생강즙을 처방한 것은 조선에서 16세기 이래 일반적인 처방이었다.66) 주목할 것은 소합원이 '퇴마'의 효과가 있다고 믿어진 점이며, 이러한 믿음은 북송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일관된 것이었다.67) 『동의보감』에는 온역에 대한 소합원의 약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소합향원 9환씩 청주 1병에 넣고 수시로 마시면 역귀의 기운을 가장 잘 물리친다. 또, 붉은 주머니에 3알씩 넣고 심장 부위에 차고 다녀도 또한 묘한 효과가 있다.68)
>
> 온역을 앓는 집에 들어갈 때는 먼저 문을 열게 한 후, 큰 솥에 물 2말을 채워 당실 가운데에 놓고 소합향원 20알을 달이면 그 향이 역기를 흩어지게 할 수 있다. 환자에게 각각 한 사발을 마시게 한 후에 의사가 들어가서 환자를 진찰하면 전염되지 않는다.69)

---

65) 『東醫寶鑑 · 內景篇』 1, 49a. 「通治氣藥」 蘇合香元, "治一切氣疾, 及中氣, 上氣, 氣逆, 氣鬱, 氣痛. 白朮 · 木香 · 沈香 · 麝香 · 丁香 · 安息香 · 白檀香 · 朱砂水飛半爲衣 · 犀角 · 訶子皮 · 香附子 · 蓽撥 各二兩, 蘇合油入安息香膏內 · 乳香 · 龍腦各一兩. 右細末, 用安息香膏幷煉蜜搜和, 千擣. 每一兩, 分作四十丸. 每取二三丸, 井華水或溫水, 溫酒, 薑湯化服. 『局方』 有龍腦, 則謂之龍腦蘇合元. 無龍腦, 則謂之麝香蘇合元." 황도연의 『醫宗損益』(1868)의 蘇合香丸은 『동의보감』의 처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하 『醫宗損益』 수록 처방은 권수만 표시한다.

66) 『簡易辟瘟方』(1526) 「疫癘病候」, 『新纂辟瘟方』(1613) 「瘟疫辟法」 모두 소합향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67) 1107년 간행된 『太平惠民和劑局方』의 蘇合香圓 조항에는 "緋絹袋盛, 當心帶之, 一切邪神不敢近"이라 하여 소합향원을 심장 근처에 차고 다니면 삿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의서들도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68) 『東醫寶鑑 · 雜病篇』 7, 23b-24a. 「瘟疫」 辟瘟疫預防法. "蘇合香元, 每取九丸, 浸一瓶淸酒中, 時時飮之, 最辟鬼疫之氣. 又絳囊盛三丸, 當心帶之亦妙." 『醫方類聚』의 인용이며, 『醫宗損益』 9에도 대체로 수록되어 있다.

69) 『東醫寶鑑 · 雜病篇』 7, 25a. 「瘟疫」 不傳染法. "凡入瘟疫家, 先令開啓門戶, 以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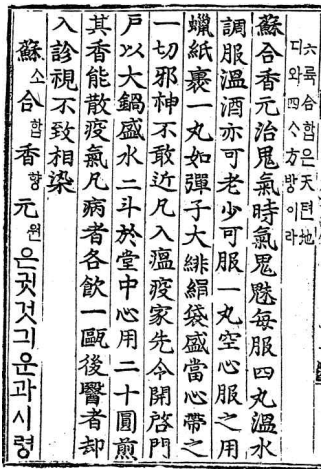
蘇合香元治鬼氣時氣鬼魅每服四丸溫水調服溫酒亦可老少可服一丸空心服之用蠟紙裹一丸如彈子大緋絹袋盛當心帶之一切邪神不敢近凡入瘟疫家先令開啓門戶以大鍋盛水二斗於堂中心用二十圓煎其香能散疫氣凡病者各飲一甌後醫者却入診視不致相染

그림2『간이온역방』소합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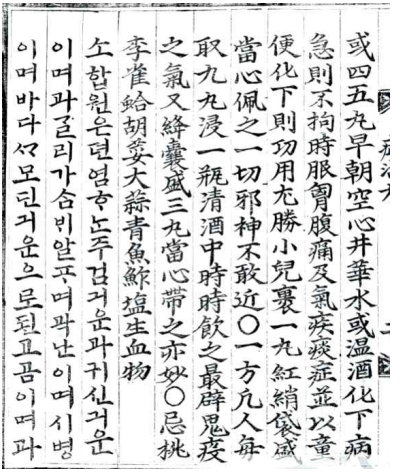
或四五丸早朝空心井華水或溫酒化下病急則不拘時服胷腹痛及氣疾痰症並以童便化下則功用尤勝小兒裹一丸紅絹袋盛當心佩之一切邪神不敢近○一方凡人每取九丸浸一瓶清酒中時時飲之最辟鬼疫之氣又絳囊盛三丸當心帶之亦妙○忌桃李雀鮓胡荽大蒜青魚鯨鹽生血物

그림3『납약증치방』소합원

소합원은 '귀기(鬼氣)와 유행병[時氣], 귀매(鬼魅)로 인한 병을 다스리는' 약으로서, 16세기 중종기에 온역 대처를 위해 언해를 붙여 보급한『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에서 가장 주요한 처방으로 권두에 수록되었고 이상의 내용들이 계승되었다.[70](그림2) 소합원은 '벽사'와 '소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합원은 연말에 왕이 신료들에게 하사하는 납약(臘藥)에 포함되어 있었다. 납약이란 12월 납일 내의원에서 우황청심환, 구미청심원, 소합원, 지보단 등 37종의 환약을 제조하여 왕실에 올리던 상비약으로, 왕은 다시 이를 근신들에게 가정상비약 용도로 하사했다. 따라서 소합원은 조선의 조정 신료들이라면 대개 그 이름과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상비하고 있는 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17세기에는『납약증치방(臘藥症治方)』의 언해가 만들어졌다(그림3).『간이벽온방』이나『납약증치방』의 언해가 이러한 의약방에 대한 지식을 한

鍋盛水二斗置堂中心, 取蘇合香元二十丸煎之, 其香能散疫氣. 凡病者各飲一甌後, 醫者却入診視, 不致相染." 이는 원대『世醫得效方』의 인용,『의종손익』9.

70)『簡易辟溫方』3b. "蘇合香元: 治鬼氣, 時氣, 鬼魅. 每服四丸, 溫水調服, 溫酒亦可. 老少可服一丸, 空心服之. 用蠟紙裹, 一丸如彈子, 大緋絹袋盛, 當心帶之, 一切邪神不敢近. 凡入瘟疫家, 先令開啓門戶, 以大鍋盛水二斗, 於堂中心, 用二十圓煎, 其香能散疫氣. 凡病者, 各飲一甌後, 醫者却入診視, 不致相染."

자를 알지 못하는 사회 계층에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납약증치방』에 수록된 소합원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소합원은 전시(傳尸)나 귀기(鬼氣)로 인한 병, 갑작스런 심장의 통증과 복통, 곽란이나 유행병, 장학(瘴瘧)을 앓는 경우, 갑작스러운 붉은 설사나 흰 설사, 월경이 막히거나 현벽(痃癖: 배의 뭉침과 통증)이 생긴 경우, 소아가 젖을 토하거나 어른이 여우 · 삵에게 홀린 병 등을 고치는데, 대개 기의 순환을 고르게 하고 담을 삭인다. 또 일체 기담(氣痰)과 중풍(中風)으로 인한 상기(上氣), 기역(氣逆), 기울(氣鬱), 기통(氣痛)을 고친다. 용뇌를 넣어 만든 것을 용뇌소합원이라고 하고 용뇌를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사향소합원이라고 한다. 매번 2-3환 혹은 4-5환을 이른 아침 공복에 정화수나 따뜻한 술에 녹여 먹되, 병증이 위급한 경우에는 때를 가리지 말고 복용한다. … 어린아이에게 1환을 싸서 붉은 비단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 차게 하면 일체의 삿된 귀신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71]

콜레라는 1879년 여름의 홍수 피해에 더하여 유행하였으며 서울과 삼남지방이 심각했다.[72] '괴질'의 세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관왕묘에서는 계속해서 신성들의 처방이 이어졌다.

3) 생맥산(生脈散)

관왕묘의 주제관과 영매들은 괴질 치료에 배즙을 사용해도 되는지, 생맥산을

---

71) 『諺解臘藥症治方』 2a-b. "蘇合元, 治傳尸鬼氣, 卒心腹痛, 霍亂, 時氣, 瘴瘧, 暴痢赤白, 月閉, 痃癖, 小兒吐乳, 大人狐貍等疾, 大能順氣化痰. 又治一切氣痰及中風上氣 · 氣逆 · 氣鬱 · 氣痛. 有龍腦則謂之龍腦蘇合元, 無龍腦則謂之麝香蘇合元. 每取二三丸, 或四五丸, 早朝空心井華水, 或溫酒化下. 病急則不拘時服, … 小兒裹一丸, 紅綃袋盛, 當心佩之, 一切邪神不敢近." 납약 하사는 조선초에서 말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태종조부터 고종 30년까지, 특히 영조대부터는 음력 11월에 정기적으로 납약 제조 준비 기사가 보인다.

72) 『승정원일기』 고종 16년 8월 1일에는 홍수 이후 '怪沴'의 유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上曰, 今年潦水, 挽近初有矣. 炳國曰, 果罕見, 而由是怪沴, 流行京外矣. 上曰, 近日多有死亡之患云, 甚切憂悶矣. 炳國曰, 丙枕憂慮, 尤切於此, 至有別厲祭設行之處分, 一時怪症, 自當寢息, 而目下憂悶極矣. … 上曰, 京城尤甚, 而昨見嶺伯狀啓, 則人命渰死之餘, 因此怪症, 又有死亡之患, 聞甚驚慘. 而大抵三南·京畿, 俱有此患矣. … 而嶺南則水災之餘, 又有此患, 爲民情極爲驚慘矣."

사용해도 되는지 신성의 뜻을 물었고 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처방을 얻었다. 1879년 8월 1일 관성제군으로부터 생강즙에 생밤 두 개를 섞어 조제하여 복용하라는 교지를 받았고, 8월 2일에는 전년도에 하교한 배즙 처방을 다시 사용해도 좋다는 답을 얻었으며, 8월 9일에는 관제가 하사한 생맥산 처방에 대해 물었다.[73]

생맥산은 도사 손사막(孫思邈, 581-682)이 여름철 폐질환을 다스리기 위해 지었다고 하지만 이는 전설에 가깝고 14세기 이전의 의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74] 『동의보감』에 의하면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을 섞어 만들고[75] 기력 증진, 진액 생성 및 여름철 더위와 해열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콜레라로 인한 탈수 증상 완화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백단향(白檀香)

이러한 약처방에 더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백단향이다. 백단향은 복용시 약효가 있을 뿐 아니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마와 벽사의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 (1879년) 8월 11일. 김희정이 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 관성제군이 가르쳐 이르셨다. "유행병을 갑자기 잦아들게 하기는 어려우니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물건을 이진모에게 하사하니 후에 너도 하나를 구해 항상 입에 머금고 있도록 하라."
> 김희정이 상주하여 말했다. "이것이 무슨 물건이옵니까?"
> 하교하시기를 "백단향이다" 하시며 하사하였는데, 작은 조롱박 같은 (모양이었고)

---

73) 『聖乩集』 50b. "八月初一日. 聖帝敎曰, 薑汁中生栗二箇, 幷磨調服之意, 奉命." 51a, "八月初二日, 昨年奉命梨汁, 今亦更用, 伏祝." "八月初九日, 下賜生脈散, 伏祝."

74) 생맥산 처방의 가장 이른 기록은 李東垣(13세기) 외 6명의 저작을 모은 의학총서 『동원십서』로 여겨지며, 주로 명대 이후 출판된 의서에 보인다. 『東垣十書』 11 「此事難知」 下, "氣虛則生脈散, 氣實則三才元." 조선에서는 1575년 선조대에 사용된 기록이 있다.

75) 『東醫寶鑑 · 內景篇』 3, 19b. 「肺臟」 單方 · 麥門冬. "麥門冬 · 人參 · 五味子, 爲生脉散, 治肺中伏火, 氣欲絶." 『醫宗損益』 7 暑 · 夏暑宜補氣.

두 개를 받아서 나왔다. 깨어난 뒤 가르침대로 봉행했다.[76]

김희정은 관왕묘에서 삼성과 소통하는 영매 역할을 했던 인물로 주로 꿈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하여 전했다. 이 시기에 고종을 23대 조선왕으로 등극시킨 조대비에게 환후가 있었다. 관왕묘에서는 1879년 8월 13일, "왕대비 전하의 환후에 배즙을 쓰는 일에 대해 복축하여 70첨시를 얻었다. 후에 배즙과 최개보(最改寶), 백단향 합계 세 조목을 받들어 지니고 입궐하여 납상했다."[77]

백단향은 『본초경(本草經)』과 같이 매우 오래된 의서에서부터 중시되던 약재이다. 불전에서도 치병 효과를 언급했고 적어도 8세기 이전부터 도교 의례에서 정화와 천계와의 소통을 위해 사용되었다.[78] 원산지는 인도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었고, 한반도에서도 9세기 이래 산출되어 조선시대에는 영월이 주요 산지였다고 하니,[79] 구하기 어려운 약재는 아니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발열로 인한 부종을 해소하고 신장의 기의 이상으로 인한 복통을 치료하며, 가슴 · 배의 통증, 곽란, 귀신에 의해 놀란 병, 귀기로 인한 병을 다스리고 살충 효과가 있다. 또한 폐 · 신장 · 위장의 경맥(수태음 · 족소음 · 족양명) 순환을 돕고, 기를 고르게 하고 맑은 향으로 (귤껍질 등) 방향성 약물을 이끌고 (체표와 신

76) 『聖乩集』 51b-52a. "八月十一日 (金熙鼎夢敎) 聖帝敎曰, 時疹猝難寢息, 爾等似或有難. 此物賜給李某, 後爾亦求其一箇, 常々含口也. 熙鼎奏曰, 是何物? 下敎曰, 白檀香也. 仍下賜, 如小操籠者二箇奉出. 而覺後, 依敎奉行."

77) 『聖乩集』 52a. "八月十三日 (王大妣殿下患候梨汁用事, 伏祝, 七十占. 後奉持梨汁 · 最改寶 · 白檀香, 合三條, 入闕納上)."

78) 『翻譯名義集』 3 牛頭旃檀 "或云義翻與藥, 能除病故. 大論云, … 白檀治熱病." 육조수당대 이래 도교에서 정화와 벽사, 강령을 위해 사용한 오향 속에 백단향을 포함한다. 불교도 유사하다. 『三皇經』(『雲笈七籤』41, 3b-4a) "凡齋戒沐浴, 皆當盥汰五香湯. 五香湯法: 用蘭香一斤, 荊花一斤, 零陵香一斤, 青木香一斤, 白檀一斤, 凡五物切之, 以水二斛五斗, 煮取一斛二斗, 以自洗浴也. 此湯辟惡, 除不祥氣, 降神靈." 실제 도교 의례에 오향이 사용된 것은 713년 張萬福의 金仙 · 玉眞公主 수도식의 기록에 보인다. 『傳授三洞經戒法籙略說』 "五香: 沈香, 薰陸, 白檀, 青木, 丁香, 龍腦, 砂, 雄. 義曰, 撒五薰之炁, 降五方之靈也."

79)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350-359; 박남수, 「8세기 新羅의 동아시아 交易과 法隆寺 白檀香」, 『韓國史學報』 42 (2011): 40-41.

체 상부 등) 높은 곳까지 올라 약효를 발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80]

5) 제호탕(醍醐湯)

제호탕은 우유를 가공한 발효음료 '제호'와는 다른 약방으로, 매실 등 과육 분말에 꿀을 넣어 졸인 시럽으로 냉수에 타서 먹는 청량음료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제호탕은 "더위로 인한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한다. (분말로 만들어 둔) 오매육 1근, 초과 1냥, 사인과 백단향 각 5돈, (졸인) 꿀 5근. 이상을 곱게 분말로 만들어 꿀을 넣어 약간 끓이면서 고르게 저은 것을 사기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찬물에 타서 먹는다."[81]

1879년 여름 8월 22일, 관왕묘에서는 훈장대감(訓將大監)의 대부인의 병환에 대해 영첨(靈籤)으로 점을 친 뒤, "제호탕 세 숫가락을 하사하여 매일 따듯한 물에 '성자보(聲字寶)'를 복용하도록" 하였다.[82] '훈장대감의 대부인'은 1875년에 훈련도감의 대장을 역임했던 조영하(趙寧夏, 1845-1884)의 모친을 말한다. 조영하는 고종이 젊은 시기부터 고락을 함께한 최측근 신료이다. 1879년 당시 조영하의 직위는 공조판서(工曹判書)였지만, 훈련대장이 관왕묘의 제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기 후에도 관왕묘의 주제관들은 조영하를 '훈장(訓將)' 혹은 '훈장대감'이라고 부르며 대소사를 논의했다.

제호탕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대개 음력 오월에서 팔월까지 여름철마다 중궁전과 신하들에게 하사되었다. 조선의 신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여름철 음료였다고 할 수 있다. 조영하의 모친이 괴질이 유행하던 시기에 병환을 얻었고, 그에 대한 관왕묘의 처방은 이러한 제호탕을 찬물 대신 따듯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그와 더불어 '성(聲)'자를 적고 보인을 찍은 부수(符水)를 함께 복용하도록

80) 『東醫寶鑑 · 湯藥篇』3, 32a.「木部」白檀香 "性溫, 味辛, 無毒. 消熱腫, 治腎氣腹痛. 又主心腹痛, 霍亂, 中惡, 鬼氣, 殺蟲", 32b "手太陰經 · 足少陰經, 通行陽明經", "能調氣而淸香, 引芳香之物, 上行至極高之分. 最宜橙橘之屬."

81) 『東醫寶鑑 · 雜病篇』3, 33b.「暑熱煩渴」醍醐湯 "解暑熱, 止煩渴. 烏梅肉(另末) 一斤, 草果 一兩, 縮砂 · 白檀香 各五錢, (煉)蜜 五斤. 右細末, 入蜜微沸攪勻, 磁器盛, 冷水調服."『醫宗損益』7, 暑 · 暑熱煩渴.

82) 『聖乩集』52b. "八月二十二日. 訓將大監大夫人身病事, 三日伏祝, 得地字三十八占. 後賜下醍醐湯三匕, 每日溫水服聲字寶, 又下賜."

처방한 것이다.

6) 천연두의 유행과 처방

1879년 여름에 콜레라가 성행했다면, 겨울에는 천연두가 유행했다. 전년도에 천연두가 유행할 때 관왕묘에서는 두부(痘符)를 처방했고 주제관들은 같은 부적을 사용해도 되는지 삼성의 뜻을 물었다.[83] 특히 훗날 순종이 될 세자가 천연두에 걸린 일은 매우 위급한 사안이었으며 관왕묘와 왕실 사이에는 한 달 남짓 상세한 상담과 처방이 오갔다.

> 12월 10일 (세자궁의 천연두의 일로 세 명이 여쭈었다)
> 관성제군이 가르쳐 말씀하셨다. "궐내 세자궁의 환후는 진정 천연두이다. 다른 부적을 쓰지 말고 '주자상안보(珠字上按寶)'를 들여보내라."
> 또 상주하였다. "주자상안보를 들이라는 명의 뜻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 상세히 가르침을 내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 다시 가르침을 내리셨다. "피부병이 발병하면 초기에 반포하면 좋을 것이다."
> (성제께서 세자궁의 두역에 대해 가르침을 내리셨을 때 신수를 복축해서 천자 54영첨을 얻은 후, 주자보(珠字寶)와 첨시의 의미를 적어 궐내에 상납했다.) [84]

'주자상안보'란 '주(珠)'자를 적은 종이 위에 보인을 찍은 부적으로, 세자의 두역에 특별히 사용하기 시작한 처방이다. 뒤이어 약방문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 12월 14일. (천연두의 병환 중 방편문에 대해 복축했다)
> 가르쳐 말씀하셨다. "나에게 약명을 묻는 것인가? 지금은 비록 조금 늦었으나, 생맥산의 본 처방 중에서 인삼을 제거하고 사용하라."[85]

---

83) 『聖乩集』 57a. "十一月初二日. 近日痘疫甚多. 故昨年命意痘符仍用, 伏告矣." 미키사카에는 조선후기에 5-6년 주기로 천연두가 유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84) 『聖乩集』 58b. "十二月十日 (世子宮痘疫事, 三人伏達) 聖帝敎曰, 闕內世子宮患候, 眞是痘患也. 勿用他符, 珠字上按寶入送也. 又奏曰, 珠字上按寶命, 意尙未認. 得更詳下敎, 伏望. 又下敎曰, 發瘡初頒布, 好也 (因聖敎世子宮痘疫時身數伏祝, 得天字五十四占後, 珠字寶與籤意, 書之, 闕內上納)."

85) 『聖乩集』 59a. "十二月十四日 (痘患中方便文, 伏祝矣) 敎曰, 問藥名於我乎? 今雖

생맥산은 앞서 본 것처럼 맥문동과 오미자, 인삼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세자의 천연두 처방에는 인삼을 제거한 생맥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12월 18일 영매 김희정은 꿈에서 다시 약처방에 대해 계시를 받는다.

> 12월 18일 (김희정의 꿈)
> 삼성께서 함께 전좌하시고 조용히 (말씀을) 주고 받으셨다. 옆에서 들으니 세자궁의 두창 등의 일을 말하고 있는 듯했다.
> 아뢰었다. "신묘한 효험이 있는 처방문을 교시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중략) 이윽고 가르쳐 말씀하셨다. "장부가 불덩어리와 같으니, 십전대보탕을 묽게 달여 두어라. 수시로 세 수저씩 들게 하라. 입안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역시 여러 수저를 들게 하는 것이 좋다."[86]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은 소합원과 마찬가지로 12세기 송대에 창안되어 보급된 약방으로, 조선에서는『승정원일기』에 효종기부터 영조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기록이 보인다. 왕실과 신료층이 잘 알고 있는 약방이라 할 수 있다.『동의보감』에 의하면 음양의 기가 모두 허해진 '허로(虛勞)'에 대한 처방으로,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숙지황, 백작약, 천궁, 당귀, 황기, 육계의 열 가지 약초를 생강과 대추와 함께 물에 달인 탕약이다.[87] 천연두 관련 주목할 만한 점은 18세기 말 정약용이 두창에 고름이 생긴 이후 십전대보탕을 처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88] 천연두 증상이 진행되어 말기가 되면 투병으로 소모된 기력을 보완하는 약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관왕묘에서는 세자의 천연두 발병 초기에 주자보, 그 다음은 인삼을 제거한 생맥산, 회복기에 십전대보탕을 처방한 것이다.

少晩, 生脈散本方中, 去蔘用之也."

86)『聖乩集』59b. "十二月十八日 (熙鼎夢) 三聖同爲奠座, 從容酬酢. 傍聽則有若世子宮痘患等事. 奏曰, 敎示神效方文, 伏望. … 仍敎曰, 臟腑如火塊, 十全大補湯淡煎而置. 時進數三匙. 若有口湯, 亦進數匙, 似好也."

87)『東醫寶鑑 · 雜病篇』4, 39b.「虛勞」陰陽俱虛用藥 · 十全大補湯 "又治虛勞自汗. 人參 · 白朮 · 白茯苓 · 甘草 · 熟地黃 · 白芍藥 · 川芎 · 當歸 · 黃芪 · 肉桂 各一錢. 右剉, 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醫宗損益』8, 虛勞 · 陰陽俱虛.

88)『痲科會通 · 資異篇』5, 59. 痘瘡癰第十二 "已潰者, 用十全大補湯."

1879년 겨울 한성을 휩쓴 천연두는 1880년 봄까지 지속되었다. 한성의 문무신료, 관왕묘 주제관의 가족들도 천연두에 걸렸으며 『성계집』에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 치성을 올리고 처방을 상담한 기록들이 산재한다. 왕세자의 천연두가 어떤 방법으로 나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879년 12월 19일 완쾌되었다고 기록되었고[89] 이를 축하하는 「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병(王世子痘候平復陳賀圖屛)」이 제작되었다.

2. 퇴마와 신성한 문자의 힘

관왕묘에서 이루어진 치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의약 처방과 더불어 특정 문자를 쓰고 보인(寶印)을 찍어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다. 『성계집』에는 콜레라가 유행하기 한 달 전, 보인 제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 (1879년) 6월 21일. 김희정이 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
> 성제께서 가르쳐 말씀하셨다. "장차 쓰일 곳이 있을 것이니, '한수정후인'을 만들어 장식하되, 보인 위 장식은 기린으로 만들어라. 길이는 2촌, 너비는 1촌이고, 보인에 다는 술은 붉은 색 털실로 하여 전각 안에 들여라. 또 귀보(龜寶)는 남묘의 옛 보인을 본으로 하여 새로 만들어 내 앞에 두어라."[90]
>
> 6월 26일. 김희정이 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용보(龍寶)를 다시 만들라는 뜻을 이모(이진모)에게 전하라."[91]

귀보(龜寶)란 남관왕묘에 소장되어 있던 관제(한수정후)의 인장을 말하는데, 인장 상부를 거북 모양으로 장식한 것이다. 위 기록에 처음에는 거북 장식의 보인을 만들라고 했다가 다시 용 장식의 보인을 만들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관

---

89) 『承政院日記』 1879년 12월 12일 "世子宮脈度平順, 而有發表時行痘候, 丁寧無疑矣." 12월 19일 "昨日伏聞春坊吏所傳, 則睿痘平復, 送神文."

90) 『聖乩集』 48b. "六月二十一日. 金熙鼎夢敎. 聖帝敎曰, 將有用處, 漢壽亭侯印造飾, 而印上彩衣猘獜造成, 而長二寸廣一寸, 印綬以紅氈爲之, 入于殿內. 又龜寶依南廟舊寶本新造, 置之於我前."

91) 『聖乩集』 48b. "六月二十六日. 金熙鼎夢敎曰, 更造龍寶之意, 傳喩於李某."

성제군성적도지속집』과 『해동성적지』에는 모두 남관왕묘와 동관왕묘에 소장되어 있는 보인에 대해 고증한 「유인고(遺印考)」가 실려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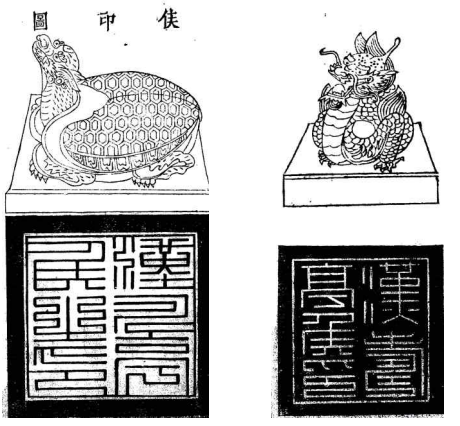

그림4 귀보와 용보 (『海東聖蹟誌』1, 4b-5a)

[귀보] 후인도(侯印圖): 황명 홍치 3년(1490) 10월 18일, 양주의 도하족이 얻은 환인은 무게가 2근 4량이고, 전각된 문장은 '한수정후지인(漢壽亭侯之印)'이라 되어 있다. 숭정 계유년(1633)에 관제가 검을 차고 말을 탄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보인의 모양과 전문(篆文)을 그려 넣었다. 태사 황휘(黃輝)가 획인연기(獲印緣起)를 써서 비석에 새겼는데, 그 탁본 족자 하나가 남묘 감실 내에 소장되어 있었다. 전문을 본떠 새긴 목인도 감실 안에 소장되어 있는데 봉안한 시대는 미상이다.

[용보] 후인도(侯印圖): 동남묘 감실에 모두 은으로 주조한 보인을 소장하고 있는데, 위에는 용 모양의 추가 달려있고 그 전문은 '한수정후인'이라 되어있다. 글자는 한나라 서법을 따랐는데 체제가 고대의 것이 아니니, 필시 국조에서 주조하여 만든 것인데 시대는 미상이다.[92]

92) 『海東聖蹟誌』 1, 5a-6a. 「遺印考」 "皇明弘治三年十月十八日, 揚州淘河獲環印, 共重二觔四兩. 其篆文曰, 漢壽亭侯之印. 崇禎癸酉, 畫關帝按劒騎馬像, 其上摹畫印樣及篆文. 太史黃輝, 書其獲印緣起, 鐫于石. 搨本一簇, 藏于南廟龕內. 倣摹篆文木刻印樣, 亦藏龕內, 而奉安時代未詳." 「侯印圖」 "東南廟龕室, 俱奉藏銀印一顆, 上有龍鈕, 其篆文曰, 漢壽亭侯印. 字倣漢法, 體制不古, 必是國朝鑄成者, 而時代

이에 따르면 귀보는 명의 황휘(1562-1612)가 남긴 그림과 글자를 본 떠 만든 거북 장식의 인장으로 남관왕묘의 감실에 소장되어 있었고, 용보는 동묘와 남묘에 각각 소장된 은으로 주조된 인장이다. 1879년에는 '한수정후인'이라 새긴 관제의 보인의 추 부분을 기린과 용으로 장식하여 새로 제작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관제에 대한 국가 제사를 올릴 때 근시(近侍)들은 전투복을 입고 기린보를 차도록 했다.[93] 괴질이 유행할 때에도 전투복에 기린보를 차고 괴황지에 기린보를 찍어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 (1879년) 7월 28일
> 성제가 가르쳐 이르셨다. "너희들은 전투복을 입고 기린보를 차고 '최개(最改)' 두 글자를 괴황지에 주사로 써서 거기에 기린보를 찍어 환자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반드시 이 약(부적)을 한두 차례 사용하라."[94]

앞 절에서 보았던 '최개보(最改寶)', '성자보(聲字寶)', '주자상안보(珠字上按寶)' 모두 이와 같이 괴황지에 주사로 글자를 적고 '한수정후인'을 날인하여 만든 부적이라 추정할 수 있다. 무위도통사 민겸호의 딸이 두창에 걸렸을 때는 '관제(關帝)' 두 글자를 쓴 부적을 환자가 있는 방의 벽에 붙이도록 하였다.[95]

관제의 인장과 주사로 적은 붉은 문자들과 더불어 삼성제군의 성호(聖號)도 소마의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1880년 초, 천연두가 아직 유행 중이었고 1월에는 궁중에서 고종의 서장자인 완화군이 서거했다. 2월부터 3월에 이르기까지 고종은 대전의 사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 경진년(1880) 2월 18일. 궐내에서 소환하여 들라는 명이 있어 입시하니, 대전 안

未詳."『關聖帝君聖蹟圖誌續集』3에도 거의 동일한 문장이 실려있다.

93) 『聖乩集』49b. "七月初五日. 聖帝敎曰, 爾等近侍之人, 自此以後, 以戰服佩猊麟寶, 而擧行也."

94) 『聖乩集』51a. "七月二十八日. 聖帝敎曰, 爾等着戰服, 佩猊麟寶, 最改二字, 寫於槐黃紙以朱砂, 仍踏猊麟寶, 付給病人. 而必用此藥一二次."

95) 『聖乩集』62b. "庚辰正月二十九日. 金熙鼎夢, 三人以閔都統第三女痘患事, 告由矣. 聖帝寫下'關帝'二字, 付給痘兒壁上."

의 잡기(雜氣)를 없애는 일을 하문하셨다.

19일. 복축하여 첨시를 받았고 삼성의 성호(聖號)를 써서 들이라는 명이었기에 성호 18장을 써서 진헌했다.96)

'삼성의 성호'란 관성제군, 문창제군, 부우제군의 성호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성호는『삼성훈경』의 보고(寶誥)에 보인다. 각 제군의 보고는 신성의 내력과 권능, 성호를 요약한 문장으로, 관성제군의 성호는 삼계복마대제관성제군・진원현응소명익한천존(三界伏魔大帝關聖帝君・眞元顯應昭明翊漢天尊),97) 문창제군의 성호는 구천보원개화주재사록직공거진군・칠곡영응보덕홍인대제・담경연교소겁행화갱생영명천존(九天輔元開化主宰司祿職貢擧眞君・七曲靈應輔德弘仁大帝・談經演敎消劫行化更生永命天尊),98) 부우제군의 성호는 개산계교현응조사・천뢰상상영보진인・순양연정경화부우제군・홍행묘도천존(開山啓敎玄應祖師・天雷上相靈寶眞人・純陽演正警化孚佑帝君・興行妙道天尊)이다.99)

삼성의 성호는 수백 장이 궐 안으로 상납되었다. 그러나 3월이 되어도 궐내에 괴이한 일들이 발생했고, 고종은 관왕묘에 계속 하문했다.

1880년 3월 3일. 잡기가 다시 일어나는 괴이함이 있었고, 또 (궐로) 소환하여 들라는 명을 받았다. (주상께서) 하문하시기에 다시 복축을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왔다. 그날 밤 복축하여 명을 받았다. 황금색 종이에 독수리를 그려 침실 천장에 붙이고 백단향을 피우라는 것이었다. 또 백단향으로 작은 호리병 모양을 만들어 사

96)『聖乩集』64b. "庚辰二月十八日. 自闕內有招入之命, 入侍, 下詢大內雜氛掃除事. 十九日, 伏祝, 承籤以三聖聖號書入之命. 故聖號十八張, 書之, 進獻."

97) 17세기 명나라 신종과 사종 때 내려진 존호이다.『關聖帝君聖蹟圖誌續集』3「爵考」12a.

98) 13-14세기 문창제군 경전과 원나라 인종 때 내린 봉호가 섞인 존호이다.『文帝全書』48,「聖誥」에 수록된 보고 중『삼성훈경』에 수록된 것은「更生永命天尊誥十一」(4a-b)과 동일하다.

99) '순양연정경화부우제군'은 1310년 원나라 무종 때 내려진 봉호이고 나머지 부분은 18세기 청대 이후 여조 관련 문헌에 보인다. 그 원형은 13세기말 원대에 성립한『玄眞靈應寶籤』(DZ1299)에 보인다.『呂祖全書』64『呂祖誥』(11a-b) 중「興行明道天尊誥三」과 유사하나 문자의 이동이 있다.

전(四殿)에 들여 몸에 지니도록 하고, 붉은 주머니 세 개에 백단향을 담아 동궁 저하에게 들여 몸에 지니게 하라는 명이었다. 따라서 다음날 이를 (주상께) 말씀드렸다.100)

(3월) 8일 밤. 황금색 종이에 대보(大寶) 두 장을 찍어 침실 안 창문과 벽 위에 붙이고 소보(小寶)를 찍어 내어 병마[祟]가 인명을 해치는 곳에 붙이라는 명이 있었기에 이를 (주상에게) 아뢰었다. 그날 밤 또 괴병이 발생했다.101)

독수리 문양을 벽사부로 삼는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오주연문장전산고』는 그 기원을 송대 휘종의 그림에서 찾는다.102) 휘종의 독수리 그림에 벽사의 효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민속에도 삼두일족의 독수리 문양 부적이 삼재부(三災符)로 사용되었다.

독수리 문양 부적과 함께 백단향을 사전(四殿)에 들였다고 했는데, 사전은 대전 · 대비전 · 중궁전 · 동궁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제의 보인을 찍은 벽사부의 사용에도 괴병의 발생이 그치지 않으니, 삼성이 무장을 하고 직접 병마를 퇴치하겠다는 계시가 이어진다.

(1880년 3월) 10일. 아침 강계(降乩)가 있었다. 저녁에 세 사람이 현성전에 들어 복축했다. 그날 밤 강계하시겠다는 명을 받았고, 삼성과 주옹(주창)이 칼을 들고 함께 들어가 (병마를) 모조리 멸하겠다는 교시가 있었다.103)

3월 9일에는 서거한 완화군의 발인이 있었다. 10일 밤의 퇴마 후 고종은 다음날 3월 11일, 정조대 1796년 간행된 적 있는『경신록』과『태상감응편』의 행방을

100)『聖乩集』65a. "三月初三日. 雜氛更有發作之怪, 又承招入之命. 下詢故, 以更爲伏祝之意,「似」[以]對而出. 其夜, 伏祝承命, 以金紙畵鷲, 帖於寢室天帳, 而焚白檀香. 又以白檀香, 製小葫蘆, 進佩四殿, 絳囊三箇, 盛白檀香, 進佩東宮邸下之命. 故翌日以此仰達."

101)『聖乩集』65b. "初八日夜. 有命意, 以金紙印大寶二張, 帖寢室內窓壁上, 小寶印出, 帖於祟侵之人命, 故以此入稟矣. 其夜又有作怪."

102)『五洲衍文長箋散稿』35「黏畫鷹辨證說」, 16.

103)『聖乩集』65b. "初十日. 早降乩. 夕三人入于聖殿伏祝矣. 其夜承降乩命意, 有三聖與周爺, 奉刀同進蕩滅之敎."

물었고 1880년 초여름까지 중간 작업을 진행하여 반포했다. 각 책의 후면에는 “주상전하의 수명이 영원한 창성에 이르시기를/중궁전하의 수명이 항상 오르시기를/세자저하의 수명이 산과 같고 복이 바다와 같기를”이라는 기원문이 등사되었다(그림 5). 간행 목적이 왕실의 장수와 평안에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다.

그림5『경신록언석』후면

『경신록』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각각 간행되었다. 한문본은 청의『增訂敬信錄』(原刻1749)의 복각본인데, 치병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다. 천연두 발병을 예방하는 불출천화경험기방(不出天花經驗奇方)과[104] 함께 구급오절양방(救急五絶良方), 태산양방(胎産良方), 경험학질방(經驗瘧疾方), 예방질병요결(預防疾病要訣) 등 의약방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표 1, 31-38).

『태상감응편』과『구겁경』이 ‘구겁과 소마’의 힘이 있다고 여겨진 것은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의약방의 수록은 청대 선서들의 특징으로 지적된다.[105] 마찬가지로 1880년 고종의『경신록』과『태상감응편』배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덕 개화에 더해 질병으로부터의 구제와 퇴마라는 문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4)『增訂敬信錄』2, 22a-22b.「異傳不出天花經驗奇方」은 주사와 사향을 분말로 만들어 천마자(天麻子)에 넣어 갈아 고약 상태로 만들고, 이를 어린아이의 두정부 한가운데, 심장 앞 가슴 한가운데, 심장 뒤의 등 한가운데, 양손 한가운데, 양다리, 양 팔꿈치, 겨드랑이 등 열세 곳에 찍어 바르도록 하는 것이다.

105) 酒井,『增補中國善書の研究』下, 183-184. 선서와 약첨에 대해서는 吉元,『道教と不老長壽の醫學』제 3-4장 참조.

	한문본 증정경신록 增訂敬信錄	언해본 수록여부
1	대자권선 大字勸善	
2	태상감응편 太上感應篇	○
3	예송 禮誦 성호 聖號	
4	감응편독법찬요 感應篇讀法纂要	
5	경조편 (附) 敬竈篇	○
6	문창제군본원진경 文昌帝君本願眞經	
7	음즐문 陰騭文	○
8	권효문 勸孝文	○
9	구세문 救世文	
10	구겁보장 救劫寶章	○
11	초창십칙 蕉窓十則	
12	권경석자문 勸敬惜字文	○
13	문창제군성원 文昌帝君聖願	
14	동악회생보훈 (附) 東嶽回生寶訓	○
15	두로권세문 斗姥勸世文	
16	현천상제금과옥률 玄天上帝金科玉律 (附) 勸世格言	
17	권성제군보훈 關聖帝君寶訓	
18	위원군권세문 魏元君勸世文	
19	연지대사방생문 蓮池大師放生文 (附) 延壽育子歌	
20	원료범선생입명편 袁了凡先生立命篇	○
21	유정의공우조신기 兪淨意公遇竈神記	○
22	문창제군서문 文昌帝君序文	
23	태미선군공과격 太微仙君功過格	○
24	여숙간선생거관형계팔장 呂叔簡先生居官刑戒八章	
25	알음설 遏淫說	
26	계도십조 戒賭十條	
27	권계익여언 勸戒溺女言 (이상 卷上)	
28	감응편영험 感應篇靈驗	○
29	인시경신록영험 (附) 印施敬信錄靈驗	○
30	음즐문영험 陰隲文靈驗	○
31	손자타태이보 損子墮胎異報	
32	구급오절양방 救急五絶良方	
33	태산양방 胎産良方	
34	불출천화경험기방 (附) 不出天花經驗奇方	
35	경험학질방 經驗瘧疾方	
36	경험구급량방 (續附) 經驗救急良方	
37	오상급구 誤傷急救	
38	예방질병요결 豫防疾病要訣	
39	보신입명요결 保身立命要訣	
40	권계식우견문 (附) 勸戒食牛犬文	
41	인송영험 (續附) 印送應驗 (이상 卷下)	

표1『경신록』수록 경전

경전과 문자의 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은 『태평경』이 유행한 2세기부터 존재했던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단사의 붉은빛을 내는 문자가 벽사의 힘을 가진다 여겼다.[106] 육조시대 도교는 도경의 문자가 천기를 응축하고 있다는 교리를 확립하고 글자가 쓰인 종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계율을 정했다.[107] 송원대 이후에는 문창의 유명한 계시 「권경자지문(勸敬字紙文)」을 통해 문자가 쓰인 종이를 숭경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훈계가 일반에 확산되었다.[108] 「권경자지문」은 조선의 『경신록』 한문본과 언해본, 문창제군의 『계궁집』에 모두 수록되었고, 『중향집』의 「무상단어록」에는 부우제군 여동빈이 조선인들에게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경고하는 문장이 보인다.

> 자, 그대 청녕이여, 당신은 문창제군의 「권경자지문」을 보았을 것이다. 그 절실하고 간절한 가르침이 얼마나 자애롭고 엄준한 것인데 거처하는 곳마다 이 집안은 전부 글자가 적힌 종이로 방을 도배하고 왕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로 밟고 앉아 뭉개도록 하여 복과 은혜를 감소시키는가? … 내가 도배된 글자들을 보니 만고의 대성들의 이름과 사적이 아닌 것이 없다. … 글자가 적힌 종이는 소중한 것이라 하늘이 아끼고 땅이 보호하며 신령과 귀신이 비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대체로 글자가 적힌 종이를 불경스럽게 대하는 습관과 병통이 있으니, 이를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109]

삼성제군이 내린 대표적인 신성 문자로는 '청(淸)', '허(虛)'자 등, 무상단사들에게 하사된 도호가 있다. 신성들은 "맑아서[淸] 찌꺼기가 없는 것은 도의 본체이고, 텅비어[虛] 막힘없는 것은 도의 작용"[110]이라는 해설로 구도(求道)의 정체성

---

106) 『太平經』 50, 5a. 「丹明耀禦邪訣」 "丹明耀者, 天刻之文字也, 可以救非禦邪. 十十相應愈者, 天上文書, 與眞神吏相應, 故事效也."

107) 『老君說一百八十戒』(『雲笈七籤』 39) 第112戒 "不得以書字之物, 自投埋於廁前."

108) 『淸河內傳』 13b-14a 「勸敬字紙文」. 문창제군 『陰騭文』에도 "勿棄字紙"라 보인다.

109) 『衆香集』 5, 101b-102a.「無相壇語錄」 "恣爾, 淸寧, 汝覽文帝之勸敬字紙文. 其勤懇之敎, 何等慈威, 而所居是室, 全以字紙塗房, 使來往諸人, 足踏坐壓, 滅其福慧. … 予觀所塗諸字, 無非萬古大聖之諱與事蹟矣. … 字紙之重, 天惜地護, 神祕鬼藏, 而大抵此土之不敬字紙之習痛, 無可言."

110) 『文昌帝君夢授祕藏經』 2b. 「南宮佐理姜眞人序」 "淸而無滓, 道之本體. 虛而無

을 부여하고, '수(壽)'자 등을 하사하여 복록과 장수를 약속했다.[111] 삼성이 계시한 문자 하나하나가 신성하다면, 문자의 집성인 경전이 영험하지 않을 리 없다. 이러한 신성 문자의 관념은 근본적으로 '생명력'과 연관되어 사유되었다.

> 고상진이 장년이 되었으나 후사가 없었는데 을해년(1875) 가을 발원하여『경신록』1백 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자 인쇄를 시작한 달에 회임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부인 이씨가 산후 출혈과다로 위독하였고, 상진이 관제 앞에 고두하며 빌었더니 부인의 병이 돌연 나았다. 다시『각세진경』1천 권을 인쇄하여 배포했다.[112]

고상진은 1875년 경복궁 위장(衛將), 1876년부터 동관왕묘의 주제관이었다. 그의『경신록』인쇄와 배포는 '득남'을 기원하여 이루어졌고『각세진경』의 인쇄와 배포는 아내의 병의 '치유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졌다.『과화존신』에 수록된 구겁문 및 영험기,『경신록』의 영험기의 내용처럼 이들 경전의 인쇄와 배포가 생명의 깃듦과 생명력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Ⅳ. 심학, 개화의 기틀

구겁과 치유를 말하는 삼성 신앙의 정신적 기틀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들의 종교적·사상적 기반을 무엇이라 규정할까 하는 물음이다. 이들의 실천은 강필·현몽 등 계시의 양식에 의거했고, 개화에 대한 소명은 옥황상제 아래에 구도

礙, 道之發用."

111)『文昌帝君夢授祕藏經』은 여덟 명의 무상단사의 도호 淸霞, 淸虛, 淸蓮, 妙虛, 淸寧, 惺虛, 玄虛, 月虛를 해설하는 경전이다.『성계집』에는 이에 더해 동관왕묘의 주제관인 이준모(이진모)와 영매 전재식(田在植)에 대해 淸雲子, 心雲子라는 호를 하사했다.『聖乩集』21a-b. 이준모의 아들 이기선에게는 壽자를 내렸다. 4b, "李基, 以父母延壽之意, 伏達矣. … 故下賜壽字焉."

112)『續集』3, 51a. "高尙鎭壯年艱嗣, 乙亥秋發願, 印施敬信錄一百部, 開印之月, 有孕産男. 而妻李氏産後, 血證沈綿瀕危,尙鎭虔叩帝前, 妻病頓愈, 又印施覺世眞經一千卷."

화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도교'라 규정할 수 있을까? 현대의 '도교학자'들이 부란강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필단을 포함하여 조선의 무상단과 관왕묘는 스스로를 '도교'로 범주화한 적이 없다. 학술범주로서 편의상 도교로 분류하고 있으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의 무상단이나 그에 큰 영향을 준 19세기초 청의 각원단(覺源壇)을 구성한 인물들의 사회적 계층이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료층이라는 점이다.[113] 강희년간 강필 문헌 집성으로 유명한 팽정구(彭定求, 1645-1719)[114]와 손자 팽계풍(彭啓豐, 1701-1784)은 모두 장원급제한 엘리트에 국가의 요직에 진출한 최상위층 관료들이며, 조선에서 삼성의 문헌 집성에 주력한 인사들은 고종의 신료들인 김창희, 최성환, 조영하, 신정희를 포함한 문무관료, 관왕묘의 주제관, 연행사 관련 인사, 훈련도감의 관리들이었다.

제도적으로도 청과 조선에서 관성제군은 모두 공인된 국가 제사에 편입되었고, 조선에서 관왕묘는 '도사'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인 '주제관'이 관리했다. 주제관은 종 2품 이하의 품계를 가진 국가의 관리들로 임기가 다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이었다. 『성계집』의 기록을 맡았던 이준모는 1874년까지 경복궁 위장이었고, 관왕묘의 주제관이었던 1876년 당시 품계는 종 2품 가선대부, 보직은 종 2품 동지중추부사였다. 삼성 강필서 출간에 힘썼던 무상단사 유운도 동관왕묘의 주제관이며 종 2품 가의대부, 보직은 정 4품 행용양위호군, 고상진은 동관왕묘 주제관 당시 정 3품 통훈대부, 보직은 정 5품 내수사별제, 즉 왕실재산관리직에 있었다.

18-19세기의 강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료층의 생애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 종교 교단 및 조직에 속한 성직자나 종교전문가가 아니며 속세에서 생활하고 나라의 관리로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관왕묘처럼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묘(祠廟)를 통해서, 혹은 자신들이

113) 蔣予蒲(1756-1819)와 覺源壇 등 문인 관료층의 『道藏輯要』 편찬에 대해서는 김윤수, 「道藏輯要와 蔣予蒲」, 『도교문화연구』 17 (2002): 277-316; Esposito, *Creative Daoism*, 177-215 참조.

114) 팽정구와 소주 지역 문인들의 강필활동에 대해서는 Daniel Burton-Rose, "Establishing a Literati Spirit Altar in Early Qing Suzhou," *T'oung Pao* 106 (2020): 1-43 참조.

결성한 강필단을 통해 신성들과 직접 소통했다. 강필단은 어떤 특정 공간에 고정된 교단이 아니며 단의 이름 아래 단사의 일원 중 누구의 집에서도 모여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결사였다. 김윤수(2009)가 '난단도교(鸞壇道敎)'라는 이름으로 무상단에 대해 서술하고 관왕묘의 '주제관'을 '도사'나 '도관(道官)'이라고 기술했을 때에도 이러한 강필단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윤경은 '민간도교(folk daoism)'로 기술하다가(2018) 최근에는 '교단도교'라고 정의했다(2019). 이러한 분류의 곤혹스러움은 이 시기 강필 문화의 향유 계층과 제도 종교의 지형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강필단을 구성한 인물들의 종교적 성향은 다양했다. 그들은 모두 유교의 심성 수양론에 익숙했으며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수긍했고, 도교에 대한 관심이라면 명청대 문인층의 수양론의 하나가 된 수진법(修眞法), 즉 내단 수련에 관심을 가졌다. 관왕묘의 관리들부터 무상단에 속한 식자층은 모두 유교를 기본 소양으로 했고, 그 중 유운처럼 불교에 조예가 깊은 이도 있었고, 영매 역할을 하던 정학구처럼 내단에 조예가 있는 이도 있었다. 전재식처럼 한문을 모르는 '무식자(無識者)'와 이승억처럼 무학의 각공도 꿈 속 계시인 '현몽'을 통해 강필에 참여했다.

이러한 문무 관료층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반은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만도 아니었다. 이들의 정신적 기반은 삼교의 공통분모를 이루는 무엇인가에 있었다.[115] 문창과 여조, 관우의 삼성이 중국의 문인계층 사이에서 강필의 신으로 사랑받은 것은 그들이 도교나 불교의 신이라서가 아니라, 학문에 힘쓰고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며 무장으로서 전장에 나아가 공동체를 수호한, 문무 관료층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친근함을 가진 신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관성제군은 공자의 춘추대의를 이은 충의(忠義)의 신으로서 '관부자(關夫子)'로 추앙되었고[116] 문창제군은 효와 학문의 신이었으며[117] 부우제군은 자

115) 『도장집요』의 삼교합일적 성격과 문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Esposito, *Creative Daoism*, 231-241 참조.

116) 『關聖帝君聖蹟圖誌續集』 純陽子序 "孔夫子之繼天立極以來, 眞儒達士之繼孔子, … 爲帝王之所尊, 作生民之導師者, 後孔夫子, 而惟關夫子一人而已矣."

117) 『桂宮誌』 1 「總例論 · 消劫」 25a. "使天下蒼生, 躋於壽域, 永消大劫. 劫之起不起, 消不消, 乃在於人心之如何." 1, 24a. 孚佑帝君讚 "斯文宗主, 釋道眞如." "隨緣開

기 수양과 보편 구제의 신이었다.

> 문창제군의 효의 성인이다. 文昌帝君, 孝之聖也. (중략)
> 복마제군은 충의 성인이다. 伏魔帝君, 忠之聖也. (중략)
> 부우제군은 진심과 공경의 성인이다. 孚佑帝君, 誠敬之聖也. (『三聖寶典』「跋」1a-2a)

사회 계층면에 있어서 구겁과 개화, 치유를 목표로 『각세진경』을 송독하고 일상다반사에 삼성의 답을 구하던 계층은 시전 상인과 각공, 궁인과 내관, 문무 신료와 왕족에 이르기까지 관과 민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봄가을 관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조성된 약 3백여 명의 춘추사(春秋社)의 일원들은 1878년 관왕묘에 새로 올린 상량문에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 천 개의 강물에 뜬 달이 한없이 비추듯 開化一心에 상제가 내려와 흠향하네 …
> 묘우 한 칸이 큰 집과 같아 끝없이 濁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니
> 좋은 인연으로 춘추사를 새로 결성했네.
>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 뒤에는 모든 신들이 지켜 주시고 삼광이 거듭 빛나
> 상천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체현함이 지극하게 하시고,
> 하토의 겁운을 구제하시어 이 땅에 은혜를 내리소서.[118]

'개화를 위한 한 마음'으로 모인 '탁계', 즉 세속의 사람들이 무상단을 포함하여 관왕묘의 춘추사를 구성했던 것이다. 이를 '교단도교'로 범주화하는 것은 관민 공통의 사상과 실천을 그들이 생각지 않은 것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다.

당시 이들 사이에 선악의 과보를 이야기하는 『음즐문』이 불교와 친연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삼교논란(三敎論難)'에 대해 문창제군은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化, 濟苦海登樂地."

118) 『聖乩集』 26a. (1878년 2월 27일) 上樑文 "千江水月照無邊, 開化一心帝降饗, … 廟貌一間如大廈, 容得無央濁界人, 好緣新結春秋社. 伏願上樑之後, 百神咸衛, 三光重輝, 體上天之生生, 至矣盡矣. 濟下土之劫劫, 恩斯勤斯." 33b, "李生瑨淳也, 丁生鶴九也, 皆爲我之手足之人, … 又爲三百餘人之首弟子也."

> (1877년 10월 5일) 옥청천의 문창제군이 강필하셨다. 지금 세상에 유서(儒書)를 읽는 자들이 불가의 책을 비방한다 하니, 그대들은 진정 어떤 도리가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옛날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하는 말인가? 그대들의 삼교논란에 대해서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 그대들이 『음즐문』의 글이 불경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유서를) 읽는 이가 (음즐문을) 읽지 않는 것은 이것이 불교에 가까워서 그러는 것인가? 그대들의 마음이 심히 공교롭게 생각하는 탓이다. 그러니 또 다시 삼교 가운데 논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119]

관성제군도 "문창제군의 이러한 훈계를 그대들의 수신을 위한 가르침으로 삼아라. 그대들은 망령되이 다시 삼교 (중 하나)에 치우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120]

그리고 이러한 삼교의 공통분모를 이루는 것은 '심학(心學)'이라 불리웠다. 1877년경 문창제군은 조선의 무상단에 강필하여 "겁운에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본심과 본성을 잃지 말라. 본심과 본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삼성의 경전을 독송하라"고 일렀고,[121] 『문창제군통삼경(文昌帝君統三經)』(이하 『통삼경』)을 계시하여 유불도 삼교가 모두 '본래 타고난 마음과 지혜를 밝히는 것'이라 했다.

> 삼교의 지극한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직 이 마음과 오직 이 지혜에 있을 뿐. 이 마음과 이 지혜에 유교와 선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122]

이 '마음'은 유교의 성인들이 전하여 하늘을 본받고 도를 행하고자 한 도심(道

---

119) 『聖乩集』 10a-10b. "玉淸文昌帝君降筆. 帝君曰, … 當今時, 或讀儒書之人, 誹謗於佛家之書, 汝等眞有道之故耶? 聞于古人論說之例言耶? 汝等之三敎論難, 吾不知之故也. 然近日, 爾等之言陰騭文之書, 近於佛經云. 而讀者未讀, 斯有佛近之故耶? 汝之心端, 則深巧之思故也. 然更有三敎中論者, 必有禍臨矣."

120) 『聖乩集』 10b. "伏魔訓戒. 此文昌帝君敎爲汝等修身之戒也. 而汝等妄復不語三敎之偏也."

121) 『三聖寶典』 1a. "文昌帝君曰, 欲救劫運, 莫失本心本性. 欲守本心本性, 乃讀三聖典."

122) 『統三經』 15b. 「統三章」 "三敎至理, 在於何處. 惟此一心, 惟此一知. 此心此知, 有儒仙佛之異乎?"

心)이며[123], 도교의 청정무위하며 고요히 만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마음이고,[124] 불교의 여래장심(如來藏心)이자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마음이다.[125] 이러한 마음을 터득한 지혜는 유교에서 양지(良知), 도교에서 묘지(妙知), 불교에서 영지(靈知)[126]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가르침이 같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길[三敎歸一]이다.

> 유도의 길, 선도의 길, 불도의 길이 있다지만 길, 도는 곧 하나다. 유교의 가르침, 선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지만 가르침, 교는 곧 하나다. 어찌 길이 하나인데 이름이 셋으로 나뉘고, 가르침이 하나인데 문파가 셋으로 나뉘겠는가?[127]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비추는 노장의 마음,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 선종의 마음, 유교의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과 양지, 이들을 하나로 보는 삼교합일의 심학이 삼성신앙의 정신적 바탕이다. 김창희 역시 부우제군의 『중향집』의 핵심이 이러한 심성론에 있다고 보았다.

> 꽃이삭은 향의 본체이니 바로 본성[性]이고, 향은 꽃이삭의 작용이니 바로 마음[心]이다. 무릇 (마음)을 정일(精一)하게 하여 중심을 잡는 것[執中]은 유교가 존심양성(存心養性)하는 이유이니 명덕(明德)의 향이 있다. 도와 하나 되어 (세속과) 조화롭게 사는 것은 선교가 수심연성(修心煉性)하는 이유이니 묘도를 간취한[聞妙] 향이 있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불교가 명심견성(明心見性)하는 이유이니 계율과 선정의 향이 있다. 존심양성, 수심연성, 명심견성에는 모두 이 향기가 스며있고 이 꽃이삭에서 자라지 않은 것이 없다.[128]

---

123) 『統三經』 2a. 「儒敎章」 "體天行道, 知天施德," 6a. "堯舜心傳."

124) 『統三經』 9b. 「仙敎章」 "淸靜無爲", 10b. "心本虛寂而靈昭, 如懸鏡之明, 靜而照物."

125) 『統三經』 12b. 「佛敎章」 "如來藏心, 恒沙衆之同具心."

126) 『統三經』 4a. 「月虛子讚」 "儒曰良知, 仙曰妙知, 佛曰靈知."

127) 『統三經』 1a. 文帝序 "儒道之道, 仙道之道, 佛道之道, 道則一也. 儒敎之敎, 仙敎之敎, 佛敎之敎, 敎則一也. 奈何道一, 而名分於三, 敎一而門分於三?"

128) 『衆香集』 1, 3a-3b. 金昌熙序 "穗者, 香之本體, 卽其性也. 香者, 穗之發用, 卽其心也. 夫精一執中, 儒之所以存心養性, 而有明德之香. 守一處和, 仙之所以修心煉

마음을 집중하여 중심을 잡아 본래 가진 덕을 밝히는 향기, 마음을 비워 사물과 있는 그대로 만나 도와 하나된 향기, 만상을 낳는 마음을 관찰하여 무차별의 깨달음에 이른 삼매의 향기, 이 모든 향이 한 줄기 꽃이삭에서 나온다. 이렇게 김창희는 마음의 작용을 향기에, 마음의 몸체를 꽃이삭에 비유하며 삼성 개화의 기틀을 '심성(心性)' 위에 정초했다.

부우제군의 가르침이 '심학'으로 강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조전서』의 수많은 강필서 가운데 조선의 문인들은 부우제군의 핵심 경전으로 『약언보전(藥言寶典)』과 『심경(心學)』을 꼽았다.

『약언보전』의 본문은 원래 18세기초 중국의 절강성 전당(錢塘)에서 강필된 『훈세문(訓世文)』으로 『여조전서』에 수록된 것이다.[129] 무상단 인사들은 이를 『중향집』에 수록했고, 후에 유운이 『약언보전』의 단행본을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나 동묘의 이배근(李培根)이 사재를 내고 김석(金奭)이 1884년 간행을 완료했다. '약언보전'이란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치유와 심학을 직결시킨다.

> 내가 대지를 돌아다니며 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병을 가지고 있더라. 질병은 단지 (한서와) 조기, 풍기, 습기, 화기 등에 의해서 경락에 전해져 침구로 제압하고 탕약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 내가 이에 깊이 고민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해 증상에 따라 처방을 내고 질병에 따라 약을 내린다. 깊이 고심한 것이니 입에 쓴 것을 싫다 말라. 복용하기를 권하는 것이 여덟 가지 약이요, 피하기를 경계하는 것이 여덟 가지 독약이다.
>
> 복용해야 마땅한 것 중, ①효도[孝]와 ②공경[弟]은 맛이 달고 극히 부드러워 뼈와 살을 보하고 수족을 건강하게 하며, 생명의 근본을 배양하고 선천의 원기를 충

性, 而有聞妙之香. 萬法歸一, 佛之所以明心見性, 而有戒定之香. 是存養也, 修煉也, 明見也, 無非爲薰此一香而長此一穗也."

129) 소지림의 증보본 『呂祖全書』 25에 수록, 1714년 王純儒가 발문을 썼다. 조선본으로 朴仁鎭(1804-1874)의 留還堂藏版 『藥言寶典』이 있는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아들 朴永壽의 識語에 부군의 사후 3개월 뒤, 1874년 甲戌仲秋부터 간행을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출간년도는 미상이다. 간행은 아들 朴永壽, 永萬, 永世와 손자 朴昌和에 의해 완성되었다. 현재로서는 '약언보전'이란 이름을 朴仁鎭이 붙인 것인지 무상단사들이 붙인 것인지 알기 어렵다.

족시킨다. ③ 믿음[信]과 ④의리[義]는 맛이 맵고 곧고 구부러지지 않은 것이 좋으며, 폐부를 뚫어주고 위와 장을 실하게 하며 심장을 정상화하고 기를 강하게 할 수 있으니 시종일관 복용하라. ⑤ 독서[讀書]는 맛이 쓰지만 감칠맛이 있고, 심장의 혈관을 뚫어주고 안목을 좋게 하며 총명함을 더하고 가슴과 배를 강하게 하고 비속함을 없앤다. ⑥아이들을 가르치는 것[敎子]은 맛은 쓰나 역시 감칠맛이 있고, 더러움과 삿됨을 씻어 없앨 수 있고 혈맥을 왕성하게 하니, 여운과 향기가 오래가는 것이 가장 좋다. ⑦선행을 쌓는 것[積善]은 맛이 달고 속을 편하게 하고 악한 기운을 제거하고 심장과 뱃속의 독기를 제거하니, 많이 복용하면 수명을 늘이고 그 이익이 후손에 있으니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많이 복용할수록 효과가 있다. ⑧운명을 아는 것[知命]은 맛이 담백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경거망동을 없애고 이유 없는 화를 없애며, 혼백을 안정시키니 먹는 것마다 달고 수면을 편안히 해줄 수 있다. (『藥言寶典』 純陽子序, 1a-1b)

이에 반해 여덟 가지 독약은 음욕[淫], 성질부리기[氣性], 탐욕[貪], 살상[殺], 심술(心術), 입으로 짓는 죄[口罪], 문서조작[刀筆], 쟁송(爭訟)이다. 부우제군의 이름으로 내려온 '문장'은 마음과 행위를 약물로 형상화하는 언어의 연금술을 통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야말로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영약이라 깨우치고, 조선의 강필문은 부우제군의 '약언'이야말로 "천지가 우리를 낳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며, "세상을 구제하는 금단옥액"이라 평했다.[130]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심경』과 『구심편(求心篇)』이다.

하늘이 만물을 낳았는데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하다. 사람이 신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이 신령한 것이다. 마음이 주재가 되니 몸의 임금이다. 온몸을 부리고 모든 감정을 알맞게 자리하도록 하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 형체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다. 하늘로부터 품수받아 잘 알고[良知] 잘 행하게 하나[良能] 기질이 얽매고 욕심이 가리면 날로 그 참됨을 잃는다. 이 마음을 잃으면 이 몸도 또한 기운다. 몸을 좋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불효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130) 留環堂藏版 『藥言寶典』 1a-1b. 鍾祖師序 "不失天地生吾之心, … 濟世之金丹玉液也."

마음으로 공손하지 못한 마음을 다스리며, 위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불충한 마음을 다스리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불신하는 마음을 다스린다. (『심경』)[131]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과 같고, 마음이 간사하고 바른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다. 해가 뜨고 지면 낮과 밤이 나뉘고, 마음의 간사함과 바름으로 사람과 귀신이 나뉜다. 따라서 마음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행위가 나오는 곳이다. 유교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하라[正心]' 하고 도교에서는 '마음을 두라[存心]' 하며, 불교에서는 '마음을 밝히라[明心]'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어지러워지지 않고, 마음이 있으면 풀어지지 않으며, 마음이 밝으면 가려지지 않으니 세 가지 가르침이 한 가지 도리인 것이다. 『맹자』에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단지 놓아버린 마음을 구할 뿐'이라고 했다. … 마음을 구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으니 … 갖가지 나쁜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항상된 인륜[倫常]에 힘을 쏟을 뿐이다. (「구심편」)[132]

몸이 기울고 아픈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무엇이 선인지 잘 알고 잘 행하는 양지·양능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몸의 건강은 그 잃어버린 마음을 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심경』은 18세기 후반 절강에서 성립하여 동아시아 전역에서 읽혔고, 「구심편」 역시 18세기 절강에서 성립한 여조의 강필서 『경세공과격(警世功過格)』[133]에 수록된 한 편으로, 공과격의 마음(意)·말(語)·행위(行) 세 조목 중 '의선(意善)' 및 '의악(意惡)' 항목을 간추린 문장이다. 문창의 『음즐문』, 관제의 『각세진경』과 비교하여 '마음'을 강조하는 만큼 동기주의를

131) 『心學正傳』 1a. 「心經」 "天生萬物, 惟人最靈. 匪人能靈, 實心是靈. 心爲主宰一身之君, 役使百骸, 區處羣情, 物無其物, 形無其形, 稟受於天, 良知良能, 氣拘欲蔽, 日失其眞. 此心旣失, 此身亦傾, 欲善其身, 先治其心, 治心如何? 卽心治心, 以老老心, 治不孝心, 以長長心, 治不悌心. 以委致心, 治不忠心. 以誠恪心, 治不信心."

132) 『心學正傳』 2a. 「求心篇」 "帝君曰, 人之有心, 如天之有日, 心之邪正, 如日之升沈, 日升沈而晝夜分, 心邪正而人鬼判. 故心者萬善之源, 而百行之所由出也. 儒曰正心, 道曰存心, 釋曰」明心. 心正則不亂, 心存則不放, 心明則不蔽, 三敎一理也. 孟子曰,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 求心之道無他, … 除諸惡念, 獨致力於倫常而已."

133) 『심경』은 1774년 소지림이 서문을 쓰고 『呂祖全書』 21에, 구심편을 포함한 『경세공과격』은 『呂祖全書』 51에 수록했다.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조선의 특이사항은『심학정전(心學正傳)』이라는 제목 아래 심경, 구심편, 영험기를 묶어 언해와 함께 간행한 점이다(그림6). 김창희의 서문은 그 간행목적과 함께 조선의 문인들이 여동빈을 어떤 신성으로 여겼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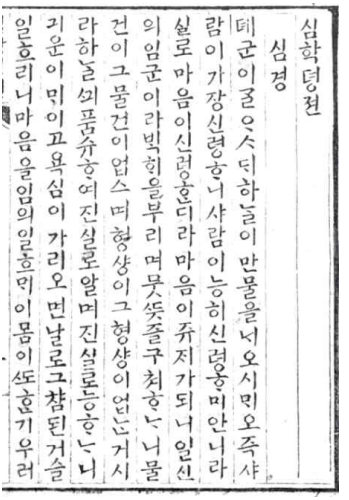
심학뎡전
심경
뎨군이ᄀᆞᆯᄋᆞᄉᆞ디하ᄂᆞᆯ이 만물을ᄂᆡ오시ᄆᆡ오즉샤
람이가장신령ᄒᆞ니샤람이능히신령ᄒᆞᆷ미안니라
실로마음이신령ᄒᆞᆫ디라마음이쥬지가되니일신
의임군이라빅힉을부리며뭇ᄯᆞᆺ즐구처ᄒᆞ니물
건이그물건이업스며형상이그형상이업ᄂᆞᆫ거시
라하ᄂᆞᆯ씨품쥬ᄒᆞ여진실로알며진실로ᄂᆞᆫᄒᆞ니
기운이ᄆᆡ이고욕심이가리오면날로그챰된거슬
일ᄒᆞ리니ᄆᆡ마음을임의일ᄒᆞᆫ이몸이또ᄒᆞ기우러

그림6『심학정전』

순양자 여진인(純陽子呂眞人)이 바로 부우제군이다. 처음 운방진인(종리권)을 만나 상진(上眞)의 비결을 받았으니 신선[仙]이다. 이어서 황룡사에 이르러 여래인을 얻었으니 부처[佛]다. 주역의 이치를 저술하고 복희와 문왕, 주공과 공자의 오의를 밝혔으니 유교의 성인[儒聖]이다. 개화의 임무를 맡아 문창제군과 관성제군과 함께 현호를 받았으니 신성이다. (중략) 부우제군의 전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유행하였으나 책이 방대하고 커서 동쪽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흘러나온 적은 있어도 구하기 매우 어려워 식자들이 그 전파가 미진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집집마다 깨우치고 송영케 하고자 문집 속에서 마음에 관한 가르침 두 편과 영험기 여덟 편을 취하여 작은 책자로 엮어 바닷가 오지에 이르기까지 널리 펴내니 … 제군의 성훈을 받들어 심학(心學)에 힘쓰기를 바란다.[134]

부우제군은 삼교를 통섭한 신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여기서 강조된 '심학'은 심성의 본체와 작용을 논하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진심 어린 거짓 없는 마음, 분노를 다스리는 온화한 마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검약하여 아끼는 마음 등, 삼교 공통의 선의 · 선행의 항목을 매일 독송하며

134)『心學正傳』1a. 金昌熙序 "純陽子呂眞人, 寔爲孚佑帝君. 始遇雲房, 授上眞訣, 則仙矣. 繼叅黃龍, 得如來印, 則佛矣. 著說易理, 闡義文周孔之奧, 則儒而聖矣. 職任開化, 與文昌關聖二帝君, 同膺顯號, 則聖而神矣." 1b. "帝君全書, 久已鋟行中國, 而部帙浩大, 亦或流出東邦, 而購致絶罕, 識者病其傳布未廣, 且欲其家喻戶誦. 乃於集中, 取心誥二文, 靈驗八, 則彙刋小編, 遍施海隅. … 奉帝君聖訓, 而勉於心學者."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학습(practice)이자 마음공부[治心功夫]다[135]. 아울러 『심학정전』의 영험기는 여조가 보인 기적들과 함께 약처방을 담고 있다.

> (절강성) 동려 통수의 … 모친이 등에 병이 나서 백방을 써도 차도가 없자 기도를 극진히 하여 여제를 감동시켰다. 밤에 꿈에 이르기를 "공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구제하도록 하였다. 하루라도 늦었다면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영보고방(靈寶膏方)'을 전수했다. 과루(苽蔞) 다섯 장에서 씨앗을 빼고, 유향(乳香) 다섯 덩어리를 대추만한 크기로 하여 두 약재를 각각 곱게 갈아 백사꿀 한 근과 함께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하루 세 번 따듯한 술과 함께 복용하도록 했다. 통수가 약재를 구하여 (전수받은 대로) 제조하여 복용시켰더니 즉시 치유되었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니 즉각 효험이 있었다.[136]

이미 『경신록』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18-19세기 청조와 조선, 에도에 유행한 선서(善書)에서 구체적 의약 처방을 실은 약첩(藥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137] 핵심주제가 '마음에 대한 가르침'인 『심학정전』에도 어김없이 함께 자리한 의약방은 치유와 심학이, 마음의 수양과 몸의 고침이 하나이며 불가분이라 생각한 19세기 '개화'의 내용으로 수렴한다.

V. 나가는 말

19세기말 조선에서는 동시대 청과 마찬가지로 전란, 전염병, 가뭄, 홍수 등 겁운의 징후 속에서 대전환기가 도래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고 겁운을 돌이킬 윤리적 개화를 촉구하며 삼성의 경전이 인쇄되고 반포되었다. 삼성의 구원과 치

---

135) 『呂祖全書』 21, 3a. 文昌帝君序 "此經實講治心功夫, 不着道家常談."

136) 『心學正傳』 5a. 「靈驗記」 "桐廬有通守, … 以母病發背, 百方不瘥, 祈禱備至, 感呂帝, 夜夢之曰, 公至孝感天, 命余救拔, 若遲一日, 不復可療. 乃授以靈寶膏方: 苽蔞五枚, 取子, 乳香五塊, 如棗大, 二味各細研, 以白砂蜜一斤, 同熬成膏, 每服三錢, 溫酒化下. 通守市藥, 治服卽愈, 後以施人立效." 이 내용은 『衆香集』 8 「呂帝聖蹟紀要」와 『도장집요』 JY170 『呂帝聖蹟紀要』에 보인다.

137) 특히 선서와 약첨에 대해서는 吉元, 『道教と不老長壽の醫學』, 제 3장 참조.

유의 방법은 의약 처방에서부터 퇴마, 경전의 인쇄와 배포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유 · 불 · 도 삼교의 가르침이 공통으로 제시해 온 도덕과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심학이 개화의 관건으로 강조되었다.

문창제군의 『음즐문』, 관성제군의 『각세진경』, 부우제군의 『심경』과 「구심편」은 각기 삼성제군을 대표하는 핵심 경전으로서, 이들 경전의 배포는 바로 개화의 실천인 동시에 치유의 약방문이 되어주었다. 한문 · 언해 병행본의 배포는 식자층부터 서민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변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이를 암송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산하며 치유와 복록을 기원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부터의 구제, 의약 처방과 퇴마의 치유법, 윤리 회복과 선행 실천의 심학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사유 속에서는 연속되기 어려운 관념과 실천들이 19세기말 개화의 한 흐름 속에 연쇄적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약물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이 신성들의 성호와 글자가 치유의 직접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고통과 질병은 도심의 체현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었다.

삼성의 강필을 통해 처방된 의약방들은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약이 아니라 당시의 의학 상식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약재와 처방들이었다. 어느 가정에서나 구할 수 있는 식재료 겸 약재, 언해된 의약서를 통해 제조법이 잘 알려진 처방 등, 이미 일반 지식의 층위에 있던 의약 지식들이 신성의 계시를 동력으로 민간 구료(救療)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낳았을 것이다.

질병이 사기와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관념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복마(伏魔)의 힘이 있는 관제의 인장을 찍은 부적과 소겁의 효력이 있는 경전의 배포가 의약방의 계시와 나란히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관왕묘를 중심으로 한 천연두 대처법을 당시 조선의 민간에서 유행하던 대응법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결정적인 치료법이 없던 시기에 두신은 '마마신' 등으로 불리며 퇴치하기보다 두려움을 전제로 한 '복종과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졌다.[138] 관왕묘의 대응법은 신성시되던 마마신을 삼계의 마귀를 제압하는 삼계복마대제, 관성제군의 힘을 빌어 적극적으로 퇴치하는 퇴마

138) 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醫史學』 2(1) (1993): 38-58.

법과 약방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지석영의 우두법은 지방에서 시험하기 시작했으나 1882년에도 사술 혐의를 받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을 뿐 보급에 이르지 못했다. 『우두신설』의 간행이 1885년, 우두법의 본격적인 보급은 1895년 갑오개혁 이후 위생국이 설치된 다음이었다. 본문에서 다룬 천연두 치유법은 바로 근대적 의료법이 보급되기 직전 시기에 해당되며, 1879년 당시 천연두에 대한 의식이 '불치'에서 '퇴치'로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으로서 의의가 있다.

본고는 의약방과 퇴마술이 복합된 이러한 치유의 실천이 '도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기보다는 19세기 양반과 중인, 서민층에 일반화된 지식의 층위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또한 사상적 측면에서도 겁운이 18세기 이래 보편적 시간 주기로 사고되었고, 도덕 개화의 기틀인 심론 역시 도교라는 범주에 예속되기보다 삼교합일의 바탕 위에 있었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했다.

도교사의 흐름에서 조망했을 때도 강필문화는 도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시와 산문을 지을 수 있는 문인층과 독서인들이 향유하고 재생산을 거듭한, 문인들의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회 상층부에서 시작되어 문맹률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의 하층부까지 확대되었고, 천계와의 소통 주체를 사찰의 법사나 도관의 도사와 같은 전문성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속계의 재가자 일반으로 확대시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전의 창조와 재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양반수가 급증하고 신분제 해체를 목전에 둔 조선 말기에 강필은 이러한 소통과 창조의 주체를 한문이건 언문이건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들로 확대시키는 것이었고, 나아가 문자를 모르는 이들조차 꿈을 통해 비가시의 세계와 소통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비가시의 세계는 신성들의 마음이자 동시에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심학'은 계층의 구분을 두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삼교의 윤리가 서로 포개져 만나는 매우 일상적인 선의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모든 평범한 존재와 일상이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고 말하는 삼교의 지혜가 도달한 자리의 재발견이며 평등한 인간관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종교와 의학, 관왕묘, 삼성, 강필, 겁운, 개화, 치유, 의약방, 퇴마, 심학

원고접수일: 2022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22년 1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9일

참고문헌

원전류

『太平經』DZ1101. (DZ:『正統道藏』No.)

『太平經鈔』DZ1015.

『無上秘要』DZ1138.

『雲笈七籤』DZ1032.

『太上無極總眞文昌大洞仙經』DZ5.

『淸河內傳』DZ169.

『史記』北京: 中華書局.

『漢書』北京: 中華書局.

『隋書』北京: 中華書局.

『甲申紀事』明 · 馮夢龍撰 1645刊.『四庫禁毁書叢刊.史部』33, 北京出版社, 1998.

『甲申傳信錄』明 · 錢禦撰. 淸鈔本.『續修四庫全書』440, 上海古籍, 1995-2003.

『明史斷略』淸 · 彭而述撰. 寫本.『四庫未收書輯刊』1-21, 北京出版社, 1998.

『呂祖全書』淸 · 劉體恕輯. 1744. 邵志琳增補. 六十四卷本, 1775. HYI Library 藏本.

『文帝全書』淸 · 劉體恕輯. 1743. 關槐增補五十卷本, 1775. HYI Library 藏本.

『文帝書鈔』淸 · 朱珪輯. 1768. 早稻田大學所藏本, 1882 重刻本.

『關帝全書』淸 · 黃啓曙輯. 1858.『關帝文獻匯編』6, 北京: 古籍文化出版, 1995.

『封神演義』明 · 許仲琳. 上海古籍出版社, 1990.

『後水滸傳』淸 · 靑蓮室主人.

『妙錦萬寶全書』明刊本. 1612.『中國日用類書集成』14. 東京: 汲古書院, 2004.

『淸實錄』國史編纂委員回DB.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回DB.

『承政院日記』國史編纂委員回DB.

『弘齋全書』韓國文集叢刊.

『圃巖集』朝鮮 · 尹鳳朝, 韓國文集叢刊.

『晉菴集』朝鮮 · 李天輔, 韓國文集叢刊.

『櫟泉先生文集』 朝鮮 · 宋明欽, 韓國文集叢刊.
『勉菴先生文集』 朝鮮 · 崔益鉉, 韓國文集叢刊.
『無名子集』 朝鮮 · 尹愭, 韓國文集叢刊.
『時聞記』 朝鮮 · 李丹石, 筆寫本.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國史編纂委員會DB.
『忠淸監營啓錄』 國譯各司謄錄27.
『湖南啓錄』 國譯各司謄錄55.
『五洲衍文長箋散稿』 古典刊行會. 서울: 東國文化社, 1959.
『무오연행녹』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東醫寶鑑』 1613.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https://mediclassics.kr/books/8)
『痲科會通』 1798.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筆寫本(古朝68).
『醫宗損益』 1868. 武橋贊化堂本. (https://mediclassics.kr/books/59)
『關聖帝君聖蹟圖誌全集』 1876. 奎章閣所藏本.
『關聖帝君聖蹟圖誌續集』 1876. 奎章閣所藏本.
『海東聖蹟誌』 1876. 奎章閣所藏本.
『桂宮誌』 1884. 奎章閣所藏本.
『文昌帝君統三經』 奎章閣所藏本.
『三聖寶典』 1877頃. 奎章閣所藏本/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衆香集』 1884. 藏書閣所藏本.
『藥言寶典』 1884. 藏書閣所藏本/ 留煥堂藏版.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心學正傳』 1878.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過化存神』 1880. 奎章閣所藏本/ 19세기 藏書閣所藏本.
『敬信錄諺釋』 1880. 奎章閣所藏本.
『增訂敬信錄』 1880. 奎章閣所藏本.
『三聖訓經』 1880. 奎章閣所藏本.
『聖乩集』 19세기 筆寫本. 奎章閣所藏本.

연구논저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66.

김옥주.「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醫史學』2(1) (1993): 38-58.

김윤경.「19세기 조선 최초의 교단 도교 무상단 연구 -『문창제군몽수비장경』을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63 (2019): 127-149.

김윤수.「『道藏輯要』와 蔣予蒲」.『도교문화연구』17 (2002): 277-316.

_____.「고종기의 난단도교」.『동양철학』30 (2009): 57-102.

김일권.「조선후기 도교 권선서의 삼제군 신격과 명청대 국가의례 전개 고찰」.『도교문화연구』51 (2019): 65-108.

김지현.「도교와 술수: 분류체계의 변천과 4-6세기 도경을 중심으로」.『철학사상』53 (2014): 55-99.

김형석.「『文昌帝君夢授祕藏經』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 한국도교경전 성립과정에서 鸞書의 의미에 대해」.『陽明學』63 (2021): 189-218.

박남수.「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한국고대사연구』55 (2009): 350-359.

_____.「8세기 新羅의 동아시아 交易과 法隆寺 白檀香」.『韓國史學報』42 (2011): 40-41.

卞廷煥.「朝鮮時代의 疫病에 關聯된 疾病觀과 救療施策에 관한 硏究」.『東西醫學』10(1) (1985): 45-63.

神塚淑子.『六朝道教思想の研究』. 東京: 創文社, 1999.

菊地章太. 「甲申大水考—東晉末期の圖讖的道教とその系譜」. 『東方宗教』87 (1996): 1-20.

酒井忠夫.『增補中國善書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99-2000.

_____.『中國日用類書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2011.

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 1963/1991.

森田憲司.「文昌帝君の成立-地方神から科學の神へ」.『中國近世の都市と文化』, 梅原編, 389-418.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4.

山田慶兒.『中國醫學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1999.

吉元昭治.『道教と不老長壽の醫學』. 東京: 平河出版社, 1989.

蓋建民.『道教醫學』.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

_____.「明淸道教醫學論析」.『宗教學研究』2000(1) (2000): 25-30.

馬麗雯.「明代道教醫學發展新考」.『宗教學研究』2020(1) (2020): 79-83.

胡劼辰. 「淸代六種文帝類全書的出版史硏究」. 『史語所集刊』 91(2) (2020): 227-292.

黎志添.「淸代四種『呂祖全書』與呂祖扶乩道壇的關係」.『中國文哲硏究集刊』42 (2013): 183-230.

謝聰輝.『新天帝之命: 玉皇‧梓潼與飛鸞』. 臺灣: 商務印書館, 2013.

Esposito, Monica. *Creative Daoism*. Wil & Paris: University Media, 2016.

Goossaert, Vincent. "Modern Daoist Eschatology: Spirit-Writing and Elite Soteriology in Late Imperial China." *Daoism, Religion, History & Society* 6 (2014): 219-246.

_____. "Spirit Writing, Canonization, and the Rise of Divine Saviors: Wenchang, Lüzu, and Guandi, 1700-1858." *Late Imperial China* 36 (2015): 82-125.

_____. "Textual Canonization of Guandi," In *Rooted in Hope* Vol 2, edited by B. Hoster, D. Kuhlmann, Z. Wesolovski, 509-526. Sankt Augustin: Routledge, 2017.

Kim, Jihyun. "Enlightenment on the Spirit-Altar: Eschatology and Restoration of Morality at the King Kwan Shrine in Fin de siècle Seoul." *Religions* 11(6)273 (2020): 1-33.

Kim, Youngyeong. "Aspects of Korean Folk Daoism in the 19th centur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1 (2018): 125-140.

Kleeman, Terry F. "The Expansion of the Wen-ch'ang Cult." In *Religion and Society in T'ang and Sung China*, edited by P. B. Ebrey and P. N. Gregory, 45-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3.

Kleeman, Terry F. *A God's Own Tale. The Book of Transformations of Wenchang, the Divine Lord of Zito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Lai, Chi-Tim. "Spirit-Writing and Salvation: The Development of the Ming-Qing Daoist Spirit-Writing Cults of Lüzu and Related Literati Spirit-Writing Altars." *Daoism: Religion, History & Society* 12-13 (2020/2021): 1-68.

Wang, Chien-ch'uan. "Spirit Writing Groups in Modern China (1840–1937): Textual Production, Public Teachings, and Charity." In *Modern Chinese Religion II: 1850-2015*, edited by V. Goossaert, J. Kiely, J. Lagerwey, 651-684. Brill: Leiden, 2015.

Abstract

Healing and Mind Practice

Spirit Writing of Three Deities in 19th century Joseon

Kim, Ji Hyun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es and ideas of healing centered on the Gwanwang shrine in Seoul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Joseon Korea suffered from recurring wars, drought, floods, and epidemics. First, it traces how the Daoist time-concept of cosmic cycle, *geob-un/jieyun* 劫運 (turning of *kalpa*), evolved into a general concept in vernacular Chinese novels, historical records, and official documents from around the 17th-18th centuries in China and Korea. Belief in the eschatological catastrophe at the end of *kalpa* fueled an increase in publication and circulation of Three Deities scriptures (*Gwanje/Guandi* 關帝, *Munje/Wendi* 文帝, and *Yeojo/Lüzu* 呂祖), which have a common narrative of deliverance from the destructive transition through the Enlightenment of humanity. Confronted with epidemic diseases like cholera and smallpox, spirit writing of Three Deities provided specific salvific methods, ranging from herbal medicine to talismanic healing and exorcism. Investigation of medical books of the time reveals those remedies belong to everyday life knowledge and common medical-magical practices. Further, it calls into question the classification of such ideas and practices as 'Daoist,' because its theoretical basis was identified with 'Mind Practice' or *simhak/xinxue* 心學, a way of unifying the Three Teachings—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 The spirit-written texts emphasized that human goodness is the elixir of salv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ellectual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late 19th century cannot be reduced to the singular framework of 'transition from superstition to science.' Instead, it illuminates the quest to transform the bodies and

minds of the entire Joseon community under the theme of Enlightenment.

Keywords: Religion and medicine, Gwanwang Shrine, Three Deities, spirit writing, enlightenment, healing, herbal medicine, exorcism, mind practice.